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평 양 출 판 사
주체110(2021)년

머 리 말

무릇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일러오고있다. 그만큼 세월의 흐름은 모든것을 변화시킨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우리 조국에서도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변혁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 모든것이 일신되고있다.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이 땅에서 변함없이 흐르는것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의 력사이다.

이 나라 인민이 삶의 태양, 운명의 태양으로 따르며 받들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신 때로부터 어언 10년!

우리 인민이 맞고보낸 이 10년은 탁월한 령도자를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부강번영도 있다는 주체조선의 100년사의 철의 진리를 심장마다에 더욱 뚜렷이 쪼아박은 나날이였다.

아울러 절세의 위인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을 태양의 모습으로 영원히 받들어모시는 도덕의리의 숭고한 세계가 창조된다는것을 걸음걸음 절감한 날과 달들이였다.

피눈물의 12월의 그 언덕에서 우리 인민이 희망찬 래일에로 발걸음을 힘차게 구르며 나아가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우리 인민과 온 겨레, 세계 진보적인류가 민족의 태양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력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주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한생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쳐 자주로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계승하여 나아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철석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걸어온 력사는 우리 혁명이 백두에서 개척되여 오늘까지 승리하여온 영광넘친 로정이며 바로 이 길이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야 할 영원한 승리의 길, 조국번영의 길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다.

주체조선의 태양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는 절세의 위인의 충성심과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변함없이 이어지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위대한 력사가 이 땅우에 펼쳐지게 되였다.

10년전 이 나라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비분에 몸부림쳤지만 장군님께서 결코 우리곁을 떠나시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 념원으로 심장들을 불태웠다.

수령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반영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 잘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였으며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시여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사상과 령도, 덕망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그대로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계신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가장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시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더욱 빛나게 하시였으며 조선인민을 선대수령들의 유훈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외국의 인사들도 격찬하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령도 전 과정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고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해나가시는 위대한 계승의 력사, 수령영생의 최상의 경지를 펼쳐오신 숭고한 도덕의리의 력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도덕의리에 떠받들리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조선의 존엄의 상징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시며 우리 조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축복속에 보다 광활한 미래에로 나아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이 꽃펴나는 주체조선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더 밝고 창창한 래일을 앞당겨오게 될것이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열백번 흐른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태양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를것이다.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행운과 긍지를 안고 주체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발걸음을 힘있게 내짚고있는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

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태양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던 령도의 나날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가운데서 그 일부 내용을 담은 도서를 세상에 내놓는다.

차 례

1. 도덕의리의 숭고한 세계 펼치시여

인민과 함께 하신 그리움 ………………………………… 10
인민에게 안겨주신 장군님사랑 …………………………… 22

2.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생전의 모습그대로 ………………………………………… 34
태양상에 깃든 사연 ………………………………………… 40
온 나라에 높이 모신 동상 ………………………………… 49

3. 태양의 력사 영원히 흐르도록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 60
영원한 태양의 존함 ………………………………………… 68
유일무이한 수령영생법전 ………………………………… 75
수령영생궁전—금수산태양궁전 …………………………… 83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는 성지로 ……………………… 92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주신 신념의 구호 ……………… 100
민족최대의 명절—광명성절 ……………………………… 109

4.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 ································ 118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해나가자 ························ 129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 정히 새기시고 ···················· 138

5.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내이며

대를 이어 전해갈 재보로 ································ 150
헌신의 그 자욱 이어가시며 ······························ 166
귀중한 씨앗들 만복의 열매로 ···························· 177

6.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모든 사업의 주선 ·· 190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 201
통이 큰 작전 련이어 펼치시여 ·························· 212

1. 도덕의리의 숭고한 세계 펼치시여

인민과 함께 하신 그리움 ······························ 10

인민에게 안겨주신 장군님사랑 ······················ 22

인민과 함께 하신 그리움

사람들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공헌한 위인들에 대하여 오래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오고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위인들이 인류력사와 더불어 사람들의 추억속에 전해져오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모두는 지금도 인류의 기억속에 살아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인민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수령의 영생은 단순히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기에만 머물러있어서는 안된다.

수령에 대한 인민의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가 수령이 서거한 후에도 생존시와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펼쳐질 때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최고뇌수로 수령은 영생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숭고한 도덕의리에 기초한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반석같이 다져나가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만 실현될수 있다.

수령영생의 새로운 경지가 펼쳐진 이 땅의 현실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

운 장을 펼쳐놓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신 12월의 그 나날 이 땅에 펼쳐졌던 그리움의 숭고한 세계는 장군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모시고 살아온 이 나라 인민의 깨끗한 마음, 숭고한 도덕의리가 얼마나 뜨겁고 진실하며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와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조선의 참모습이 어떤것인가를 세상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주체100(2011)년 12월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길을 따라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걸음을 힘있게 내짚고있었다.

이해의 12월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돐이 되는 달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예술공연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고있었고 거리와 마을들은 명절을 맞이하는 열기와 흥분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해에도 조국과 인민의 부강번영을 위한 토대를 하나하나 마련해나가시는 현지지도강행군으로 분분초초를 긴장하게 보내시였다.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에 들어와서도 불편하신 몸이였지만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인민군대의 여러 부문 사업을 지도하시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개선청년공원유희장과 함경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하나음악정보쎈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도 련이어 찾으

시여 인민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안겨주려는것이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기도 하시였다.

그러던 12월 19일 낮 12시였다.

인민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길에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시였음을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알리는 방송원의 비분에 젖은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울려퍼졌다.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시였다는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린다. …》

처음 사람들은 방송원의 말을 도저히 리해할수 없어 자기들의 귀를 의심하며 서로 마주보기만 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꿈아닌 현실이라는 느낌으로 하여 온 나라 인민들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어버이를 잃은 비통함과 애석함,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몸부림쳤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은 수령, 령도자이시기

전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줄수 없었던 가장 진실하며 열렬한 사랑과 정을 주시던 위대한 인간,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의 마음, 이것은 장군님과 함께 시련과 영광의 길을 헤쳐오는 과정에 그이께서 인민에게 주시던 무한한 사랑과 뜨거운 정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밖의 서거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강렬하게 폭발시킨것도 그이와 떨래야 뗄수 없이 맺고있던 그 사랑과 정때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인민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던 정, 장군님과 그처럼 뜨겁게 맺어져온 정이 너무도 갑자기 끊어졌으니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사무쳤다.

피눈물의 대하가 흐르던 그 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취해주신 조치 하나하나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진정한 그리움이 가장 순결하게, 가장 숭고하게 슴배여있었다.

주체100(2011)년 12월 1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렇게도 갑자기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는 비보를 장군님께서 생전에 그처럼 사랑하시던 인민들에게 알려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져나가는듯한 괴롭고 고통스러운것이였다.

나는 아직 가야 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야 온 나라에

승리의 불길이 타번지고 인민들이 잘살수 있게 된다고 하시며 앞을 막아나서는 일군들에게 오히려 쓰러지지 않도록 건강을 잘 돌보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음성이 금시라도 다시 들려오는것만같으시였다. 지금의 건강상태로는 현지지도를 하실수 없다며 울면서 그이의 앞을 막아나서던 의사들의 모습도 떠오르시였다.

자신의 탄생일마저도 언제 한번 편히 쉬지 않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께 70돐상이라도 성의껏 차려드렸더라면 이다지도 절통하지 않을것만같으시였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에 제일먼저 접한 일군들이 애석함과 비분을 억제하지 못하고있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하면 오열을 터칠 인민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였다.

세상에 령도자는 많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처럼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우에서 순직하신 위인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친근한 동지, 전우였다.

그이께서는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여도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였고 기쁜 일, 가슴아픈 일이 생겨도 인민들속으로 들어가시

였다. 언제나 나의 병사, 나의 인민들이 기다린다고 하시며 풍랑사나운 파도를 헤치고 칼벼랑길도 서슴없이 넘으시며 천리방선과 공장과 농촌, 두메산골 그 어디에나 찾아가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인민을 품어주고 보살피는 열의인, 정의인이 되시여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신 위대한 어버이이시기에 인민은 영원히 그이의 품에 길이 살리라의 노래를 부르며 장군님을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옵는것을 그토록 소원하였다. 한번 뵈옵고는 헤여지는것을 제일로 서운해하였고 헤여지면 언제면 또다시 만나뵈올수 있을가 생각하면서 그이에 대한 그리움을 늘 가슴에 품고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속에 날과 달, 해를 보낸 인민이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그리움은 위훈창조의 원천이다.

우리 인민이 세상을 놀래우는 위훈을 창조할수 있은것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그리움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고난과 슬픔도 웃음으로 맞받아나가 강국건설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나갈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은것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때문이였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우리 인민은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 아끼고 내세워주고싶으시였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이였다. 인민에게 있어서 장군님은 자기들의 모든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따르는 삶의 태양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정을 자신들의 숨결로, 명줄로 간직하고 살아온 이 나라 인민이였기에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사무치는 그리움은 더욱 절절해지기만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이 자기들의 그리움을 장군님께 한껏 터놓을수 있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의행사를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우리 당을 믿고 따르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남김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시면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언제나 인민과 함께 나누시였다.

조의식장에 나오시여 눈가를 뜨겁게 적시시며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묵상하고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을 더욱 커지게 하였다.

대국상의 비보에 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뵈올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하며 무작정 평양으로 향한 렬차와 자동차에 몸을 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간절한 이 마음을 헤아리시

여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올수 있게 특별렬차와 비행기의 운행을 조직하도록 해주시였다.

이렇게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으로 온 나라 인민의 마음과 마음들이 끝없이 달려오게 되였다.

온 나라가 피눈물속에 잠겨있던 10여일의 애도기간에 연 2억 6 000여만명의 인민들이 자기들의 슬픔과 애석함, 그리움을 마음껏 터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을 직접 찾아뵙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뵈오며 자기들의 마음속진정을 아뢰고싶었던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깊이 헤아려 평양시와 각 도소재지들에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야외조의식장을 꾸리도록 하신분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이 땅에 살고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가 추모의 꽃송이와 꽃다발을 엮어들고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웠다. 새날이 밝으면 조의식장에서 곧바로 일터로 가고 하루일이 끝나면 일터에서 조의식장으로 달려오는 인민의 거대한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는 낮과 밤, 날과 날이 흘렀다.

군중들이 끊임없이 달려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앞까지 불과 200여㎧였지만 네시간이상 걸려서야 초상화앞에 이

를수 있었다는 이야기, 10대의 어린 학생들이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도소재지의 조의식장을 찾아 수십리 눈보라길을 걸어 추모의 꽃송이를 드리고 밤새워 호상을 섰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애도기간에 꽃펴난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이 땅 어디에 가나 무수히 들을수 있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언제나 인민과 함께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과 혼연일체를 이룬 이 나라 인민이 펼친 숭고한 도덕의리의 화폭들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장군님과의 영결행사 전 과정은 장군님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과 인민의 그리움에 뿌리를 둔 숭고한 도덕의리와 혼연일체의 진모를 세계앞에 남김없이 보여준 숭엄한 대화폭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다음날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장군님과의 영결식을 우리 식대로 새롭게 할데 대하여서와 장군님과 영결하는 의식을 잘 조직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를 위해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의 영결행사에 참가하려는 인민의 절절한 심정과 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사무치는 그리움을 깊이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영결행사의 로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과 영결하는 100리연도에 하늘땅을 진감하는

인민들의 그리움이 바다를 이루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화폭들이 련이어 펼쳐졌다.

그 하나하나의 화폭들은 그대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살아온 이 나라 인민이 그이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 뜨거운 마음의 분출이였다.

2011년 12월에는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렸다.

어버이와 영결하는 인민의 마음인양 소리없이, 하염없이 눈이 내려쌓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을 찬눈길에 모실수 없었기에 인민들은 영결의 거리를 쓸고 또 쓸었다. 그것도 부족한듯 저저마다 솜옷과 목수건을 벗어 장군님 지나가실 길에 정성들여 폈다. 지어 가정들에서 단 한번도 덮어본적이 없는 새 이불과 담요까지 가지고 나와 장군님의 령구차가 지나갈 도로에 펴드렸다.

영결의 거리들에서 어버이장군님은 인민을 두고 절대로 못 가신다고 목놓아울며 령구차를 에워싼 인민들의 눈물겨운 화폭, 아프고 쓰린 마음을 달래지 못하여 령구차를 따라 영결의 거리를 달리다가는 쓰러지고 령구차가 멀어져 더는 보이지 않게 되였을 때에는 그 자리에 어푸러져 일어설념을 하지 못하고 땅을 치며 뜨거운것을 쏟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영원한 그리움의 군상으로 력력히 새겨졌다.

어버이를 찾고 부르던 그 눈물겨운 광경,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 볼수도, 지어낼수도 없고 흉내낼수도, 재현할수도 없는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감동깊은 화폭들이였다.

당시 위대한 장군님과의 영결식을 직접 목격한 한 해외동포는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령구차가 지나가게 될 길에 눈이 쌓이는것을 념려한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평양시민들은 남녀로소가 혼연일체가 되여 이불과 담요를 가지고 나와 아스팔트길을 덮기 시작했다.

이불과 담요뿐 아니라 목도리와 겉옷까지 펴서 눈이 내리는 길을 덮고있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령구차가 지나갈 길우엔 헤아릴수 없이 많은 평양시민들이 나와 눈을 치고 얼음을 까고있었다.

나는 어느 한 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왜 눈을 치고 얼음을 까고있는가?>라고 물었다.

그 녀성의 대답은 단호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을 편안히 하기 위함이다.>

그 녀성의 눈엔 눈물이 글썽하였고 목메인 음성이였다.

그런 녀성을 보며 나의 눈시울도 뜨거워지는것을 느꼈다.

이번 대국상을 통해 <수령, 당, 인민 3위1체>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온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과 영결하는 의식이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거행되였는데 그 진행과정과 군중들의 참가질서에 나는 완전히 압도당하였다.

나는 그때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고 또다시 생각하였다.

나는 이번 북녘의 갑작스러운 대국상에 재미동포의 한사람으로 참가하여 말로만 듣고 알고있던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줴기밥을 드셨다는 사실과 또 핵무기보다 강한 일심단결 등에 대한 이야기를 실감하고 충분히 리해하고 돌아왔다.》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는 행사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전인민적인 조의행사로 엄숙히 거행되고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될수 있은것은 인민이 지닌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하신 은정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지극한 경모심과 깨끗한 도덕의리심을 지닌 인민의 진정, 신뢰의 정에 떠받들려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한 태양으로 더욱 깊이 간직되게 되였다.

세계는 자기의 령도자와 운명의 공동체를 이룬 주체조선의 참모습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게 되였다.

인민에게 안겨주신 장군님사랑

인류력사의 갈피에는 위인이나 명인들이 사랑에 대하여 남긴 나름대로의 견해들도 기록되여있다.

《사랑은 삶의 시이고 태양이다.》, 《사랑은 모든것을 이기며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풍만한 화목과 단합의 화원을 가꾼다.》…

표현은 서로 달라도 이 말들에는 사랑은 인간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상감정이며 사람들이 그처럼 소원하는 화목과 단합은 사랑에 기초한다는 생활의 리치가 담겨져있다.

하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결한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수령이 인민들에게 베푸는 친어버이의 사랑이다.

수령의 사랑은 인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 신심을 안겨줄뿐 아니라 온 사회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전변되게 하는 근본요인이다.

우리 조국땅우에 무수히 수놓아지는 혼연일체의 화폭은 세대와 세대, 세기와 세기를 넘어 줄기차게 이어지는 절세의 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어버이사랑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인민들이 폐부로 체험하고있고 세인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숭고한 인민사랑,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무한한 경모심에 뿌리를 두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인민을 그토록 아끼며 한품에 안아 믿음과 정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깨끗한 마음, 최대의 경의로 간주하고계신다.

이렇듯 숭고한 바탕에 뿌리를 두고있는 사랑이여서 그이의 인민사랑은 뜨거웁고 끝이 없는것이다. 이런 불같은 사랑이 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이 끝없이 아로새겨지고 장군님은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한 혼연일체의 어버이로 모셔져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 인민의 심장속에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영원히 새겨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위대한 장군님의 모든 사고와 활동의 목적이고 원천이였으며 그이는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지니신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시였다.

자신보다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정을 부어주고 한번 정을 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정을 같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정의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졌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겪으며 인생체험도 많이 하였다고, 그는 인민들과 함께 고난

과 시련을 헤쳐나가면서 혁명동지와 인민에 대한 믿음, 주체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더 굳게 간직하고 혁명가에게 있어서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소중하며 힘있는것이 믿음이라는 철리를 가슴속깊이 새겨안게 되였다고 교시하신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지극한 경모심과 잇닿은 가장 뜨거운 인민사랑이였음을 인민들은 대국상의 나날 사무치게 새겨안게 되였다.

주체100(2011)년 12월 31일이였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어버이가 계시지 않는 새해의 첫날에 대하여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인민의 비통함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이제부터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심정으로 일해나가야 한다고, 나도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것처럼 그렇게 일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졌다는 숭고한 사명감과 함께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정히 담아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새 력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이 맺었던 혈연의 정이 그대로 이어지

게 하는데 장군님의 영생을 지켜드리는 길이 있다는 의지를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자신이 당하는 상실의 아픔보다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먼저 생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대국상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인민들에게 장군님의 어버이의 사랑과 정이 그대로 이어지도록 하시여 장군님과 인민이 맺은 혼연일체를 더욱 공고히 하여주시였다.

지금도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해를 맞는 수도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하시려 서거하시기 몇시간전에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한 문건을 비준하여주신 사실과 추모의 나날 그 은정어린 물고기를 받아안으며 눈물을 흘리던 격정의 순간을 잊지 못하고있다.

온 나라 인민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와 관련한 비보가 전해지기 전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마련해주신 물고기가 동해안의 어느 한 항구에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가슴속깊이 묻어두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물고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하시며 특별렬차를 동원하여 평양까지 집중수송하도록 하시고 해당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은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의의있게 공급조직하여 장군님의 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가닿게 할것.》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에, 장군님사랑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이 터져와 밥술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고 피눈물만 삼키던 수도시민들의 집집마다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물고기가 공급되는 인민사랑의 새 전설이 태여나게 되였다.

누구나 피눈물을 뿌리고있던 때 자기들에게 안겨진 물고기들을 보며 도대체 력사에 있어본적도 들어본적도 없었던 이런 일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알게 된 인민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울었고 장군님사랑을 그대로 이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이 고마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였다.

장군님사랑이 그대로 인민들에게!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이 고스란히 슴배여있는 물고기를 받아안으며 인민들은 대국상의 그 나날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먼저 생각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이는 곧 우리의 장군님이시라는 신념을 간직하게 되였다.

피눈물의 그 12월에 인민들이 한결같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대한 장군님과 꼭같으신 인민사랑의 화신이시라고 격찬한

것은 결코 그 누구의 강요나 지시에 의한것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겁고 열렬한 사랑 그 자체가 인민으로 하여금 그이를 스스럼없이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게 하였다.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사랑 그대로인 경애하는 그이의 인민사랑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이만을 높이 모실 때 자기들의 운명과 미래가 있음을 더욱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2월의 강추위속에서 추모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인민의 모습을 뜨거움속에 보시며 사랑의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쏟아지는 폭설속에 꽃들이 젖을가봐 입고있던 솜옷과 목도리, 나중에는 웃옷까지 벗어 화환에 씌우고 맨손으로 조의식장의 눈을 말끔히 쳐내는 청년대학생들, 눈물에 젖어 얼어붙은듯 여러 시간동안 호상을 서고있는 각계층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이며 청년학생들 지어 철부지로만 여겨온 어린이들까지 끝없이 조의식장으로 물결쳐오는 모습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감동깊은 화폭들이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시각 이 광경들을 조용히 지켜보시는분이 계신다는것을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대국상의 그날 장의행사가 진행되는 기간이 추운 겨울인것만큼 조의를 표시하는 행사를 비롯한 모든 행사들에서 인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하고 미리 대책을 취하도

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매일과 같이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서 호상을 서시며 장의행사를 주관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야외조의식장들에 대하여, 강추위에도 아랑곳없이 호상을 서고 장군님을 애타게 부르며 찾는 인민의 모습을 한시도 잊지 않고계신 경애하는 그이이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정말 좋은 인민이라고, 이런 인민을 위해 손발이 닳도록 일하자고 젖은 음성으로 일군들에게 절절히 말씀하시는 그이의 심중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 흘러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대국상의 나날 추운 겨울밤 추위속에서 인민들이 떨고있다는것을 아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다시금 수도시민들의 참된 복무자,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과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보장사업을 잘해나가야 하겠다고, 어머니된 마음으로, 어머니의 손길로 수도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바란다는 친필도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자신의 그리움과 인민에 대한 사랑을 구태여 따로 고백하시거나 선언하지 않으시였다.

하지만 인민들이 추위속에서 떨고있다는것을 아시면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신다고 그처럼 걱정하시는 절세위인의 이런 사랑과 정이 있어 인민은 추운줄도, 외로운줄도 몰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외조의식장을 찾는 인민들과 호상을 서는 사람들이 모자와 머리수건, 장갑과 귀걸이를 착용하게 하고 조의를 표시할 때에만 벗도록 하며 그들이 추운 날씨에 불편을 느끼거나 동상을 입는것과 같은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데 대한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수만개의 발열붙임띠와 발열신발깔개, 귀걸이에 대한 이야기, 더운물봉사와 은정어린 사탕가루에 대한 이야기, 몸을 녹일수 있는 뻐스와 가설건물에 대한 이야기, 수도시민들을 위한 24시간뻐스운행봉사에 대한 이야기…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인민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이 생겨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렇게 하는것은 자식의 도리, 전사의 도리가 아니라며 손을 내흔드는 사람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이라고 목이 메여 설복하며 봉사매대와 몸을 녹이는 뻐스들로 잡아이끄는 일군들과 봉사자들…

이끄는 사람도 이끌려가는 사람도 누구나 한사람같이 터치는 격정으로 하여 인민의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과 정은 더욱 뜨겁게 파도쳤다.

정녕 대국상의 나날에 인민들이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은 그 누구보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계시면서도 장군님과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며 인민들에게 장군님사랑을 그대로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 그대로였다.

이 나날에 동지죽을 받아안고 인민들이 격정의 눈물을 또다시 쏟은 잊지 못할 12월 22일도 흘러갔다.

어버이를 잃은 비통함으로 하여 인민들은 이날이 동지날이라는것을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동지팥죽이 인민들에게 안겨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하여 동지죽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있는 인민들을 위하여 급양봉사망들에서 동지죽을 봉사하도록 해주시고 구체적인 대책들까지 일일이 세워주시였던것이다.

동지죽을 받아안는 인민들의 머리속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어느해 동지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몇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급한 일이 제기된줄 알고 달려온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는 오늘이 동지날이여서 동지죽을 쑤었는데 오래간만에 동무들과 함께 맛보자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그만 얼굴을 붉히였다. 그날이 동지날인줄 모르고있었던것이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는 동지날에 동지죽을 쑤어

먹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동지죽을 먹으면서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다는 생각도 하고 지난해를 돌이켜보기도 하며 새해의 결의도 다지는것이 나쁠것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지팥죽을 많이 들라고 권하시며 이렇게 모두 한 가마에 끓인 음식을 나누어 먹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였다.

동지날을 맞으며 급양봉사망들에 많은 원자재를 보내주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주시여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동지팥죽이 풍기는 민족적향취로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런데 추억깊은 그 동지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던것이다.

조의식장들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이 함께 어린 동지죽을 받아안았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라 형언할수 없었다.

동지날이라는것을 생각조차 못하고있던 인민들은 동지죽을 받아안고 대국상속에서도 동지날을 잊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가슴가득 되새겨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장군님의 불같은 한생이 어려와 뜨거운것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이께서 대국상의 나날 련이어 취해주신 사랑의 조치들은 인민의 마음속에 그이를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을 끝까지 이룩해갈 신념을 더욱 굳게 심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숭고한 인민사랑의 세계에 떠받

들려 우리 인민은 대국상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안게 되였으며 변심없이 자기 수령을 받들고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었다.

하기에 언제인가 이 땅을 찾았던 외국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쓴바 있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만을 절대시하는 사람들로서는 초등수학만을 배운 학생들이 고등수학을 깨치기 힘들어하듯이 수령과 인민대중의 이러한 혈연적관계가 잘 리해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충분히 리해되고 공감이 간다.

선과 정의, 사랑을 설교하고 <저승의 행복>을 약속했을뿐인 종교창시자들이 인류의 여러 세대들로부터 숭상을 받아오고있는데 하물며 정의와 진리, 사랑을 구현하여 자기들을 불행에서 건져주고 지상락원에서 살도록 해준 위대한분을 어찌 인민들이 하느님처럼 숭배하지 않으랴.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따르는것이 당연할진대 인민들이 자기들을 광명에로 이끌어줄뿐 아니라 친부모의 심정으로 운명을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수령을 어버이로 우러러따르고 혼연일체가 되는것은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이 맺은 혈연의 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랑이 있어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굳건해지고있으며 장군님은 그 중심에 서시여 인민들을 축복해주신다.

2. 영원한 태양의 모습으로

생전의 모습그대로 ······························ 34
태양상에 깃든 사연 ···························· 40
온 나라에 높이 모신 동상 ···················· 49

생전의 모습그대로

수령의 영생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중대하고도 선차적인 문제는 수령이 서거한 후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시는것이다.

수령을 생전의 모습으로 잘 모셔야 대대손손 인민들의 심장속에 수령의 존함과 영상이 깊이 간직되게 하고 그 어떤 광풍이 몰아쳐도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이룩할수 있다.

주체100(2011)년 12월 17일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국가장의행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장군님의 뜻대로 모두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책임적으로 일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날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의 하나는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셔야 한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이 금수산기념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잘 모셔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셔야 한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와 다름없이 늘 장군님을 찾아뵙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모든 사업을 오직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의지가 어려있었다.

인민들이 지난 시기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찾아뵙고 수령님과 마음속대화를 나누어온것처럼 생전의 모습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자주 만나뵈옵고 인사도 올리고 자기들의 사업정형을 보고하며 가르치심도 받게 하시려는 그이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인민들이 수령이 생존해계실 때처럼 스스럼없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며 그이와 마음속대화를 나누면서 운명개척의 옳바른 길을 찾는것, 인민들모두가 기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생전의 모습그대로 계시는 수령을 찾아 사연을 아뢰고 가르치심을 받게 하는것, 이것이 다름아닌 수령의 영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시는것을 장군님의 영생을 지켜드리는데서 제일 선차적이고도 중대한 사업으로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맞이한 새해의 첫아침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하신 뜻깊은 말씀이 있다.

부대지휘관들에게 오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새해의 인사를 드리는데 어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 귀전에 울려와 그달음으로 찾아왔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이께서는 2012년 12월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을 때에도 그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시면서 평양에 올라와 자신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뵈옵고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대한 충성의 보고를 드리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여기에는 자신뿐 아니라 온 나라 인민들이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언제나 뵈오면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 그이께 사업보고도 올리는 심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지가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함께 모셔야 한다고 보시였다.

사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를 받으시였을 때 그이께서 당하신 상실의 아픔과 비통한 심정은 그 무엇에도 비할수 없이 큰것이였다. 온 우주가 통채로 내려앉는듯한 가슴저미는 고통이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을 이겨내시며 오로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장군님을 인민의 절절한 념원대로 모시겠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며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시였다.

이 나라의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떠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은 곧 위대한 수령님이시고 수령님은 곧 장군님이시라고 늘 굳게 믿어온 인민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였다. 그래서 인민들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에 따로따로 계시는것으로 생각해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함께 모시는것은 인민의 이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께서 하셔야 할 중대한 사업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국상의 비보를 전하는 자리에서 일군들에게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시고싶은것이 나의 마음입니다. 장군님은 언제나 수령님과 함께 계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에도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주체의 한길을 드팀없이 걸으신 수령님의 가장 가까운 전우, 동지이시였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을 금수산기념

궁전에 함께 모시는것은 도덕의리적으로 보아도 조선의 혁명가, 장군님의 전사들이 꼭 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에 함께 모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신다고 하면 인민들이 적극 지지할것입니다. …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셔야 한다는 중대결단은 이렇게 내려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높이 모시기 위한 사업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과의 영결식이 거행된 때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일군들에게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011년의 마지막날에도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시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우리가 장군님을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하였는데 이제라도 장군님께 못다 바친 마음까지 합쳐 순결한 량심으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우리 인민이 얼마나 숭고한 도덕관을 지닌 인민인가를 온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면서 장군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시기로 결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늘 입고 다니시던 옷,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는 잠바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모시도록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헌신성, 열렬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야전복인 잠바옷과 색날은 솜옷차림으로 인민들속에 계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아직 제낀형옷을 입을 경황이 없다고, 일을 많이 하자면 옷도 전투적으로 입는것이 좋다고, 자신의 잠바는 자신에게 있어서 전투복이나 다름없다고, 자신께서는 활동형의 옷이 좋다는 교시를 하신적이 있다.

그이께서는 한여름의 불볕이 사정없이 쏟아지는 속에서 온몸을 땀에 푹 적시면서도 늘 야전복차림의 잠바옷을 입으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계시였다.

인민들에게 있어서 그이의 야전복은 단순한 전투복이 아니였다.

세월의 모진 비바람과 강추위도 다 막아주고 사랑의 넓은 품에 따뜻이 안아준 다심한 친어머니의 정깊은 옷자락이였다.

야전식이 제일이라고, 야전식생활은 자신의 몸에 완전히

푹 배였다고, 혁명하는 시대에 야전복을 계속 입을것이라고 하시며 한평생 야전복차림으로 인민을 위해 마음써오시다가 그 야전복, 잠바옷차림을 하신채로 인민행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래서 인민들에게는 야전형의 잠바옷을 입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친어버이의 모습으로 정깊게 새겨져있었다.

주체조선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기 전에는,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기 전에는 절대로 벗지 않으시려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그 야전복차림으로 계신다.

태양상에 깃든 사연

무릇 태양이 없이는 못산다고 일러오고있다.

만물에게 빛과 열을 주는 태양을 떠나 그 어떤 생명의 출현이나 성장, 소생과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옛적부터 인간은 가장 신성하고 가장 은혜로우며 가장 위대한 존재를 태양에 비겨왔다.

2011년 12월은 이 나라의 인민들에게 있어서 유난히도 추웠던 달이였다. 례년에 없던 강추위가 들이닥친것으로 하여 느낀 감정이 아니였다.

끝없는 희열과 래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언제나 따뜻

한 빛과 열을 쉬임없이 안겨주던 삶의 태양이 꺼지고 순식간에 온 천지가 암흑속에 잠겨버린것만같았기때문이였다.

사람들은 비분과 슬픔, 절통함을 못이겨 오열을 터뜨리면서 태양을 찾아 정처없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비애의 눈물속에서 인민들이 애타게 찾은 태양은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갑자기 서거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이 나라 인민의 모든 기쁨과 행복, 운명과 미래의 전부이시였다.

설사 저 하늘의 태양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그이의 품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수 없다는것이 인민들모두의 하나같은 생각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지금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한 《인민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면 한평생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계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습니다. …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간직하고계신 신조였다.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다.

인민을 그렇듯 사랑하시던분, 그래서 친어버이로 따르고 받들던 삶의 태양을 잃었으니 인민들이 어찌 피눈물을 쏟지 않을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슬픔에, 그이를 뵙고싶은 그리움에 산천초목도 몸부림치던 그때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들에게 안겨주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시였을 때 우리 조국에는 장군님의 동상은 물론 그이의 태양상도 모셔져있지 못하였다.

인민을 위한 일에는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신분, 인민들이 바라는것이라면 다 들어주신 장군님이시였건만 자신의 동상을 모셔야 한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만은 끝끝내 들어주지 않으셨기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직후 더욱 비통함과 절통함의 피눈물을 쏟은 인민들이였다.

인민들은 친어버이를 잃은 자기들의 안타까움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과 수령님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영상작품들을 찾아 토로할수밖에 없었다.

온 나라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찾아 몸부림치던 주체100(2011)년 12월 20일이였다.

《로동신문》에 해빛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가 모셔졌다. 동시에 **김일성**광장과 당창건기념

탑, 4.25문화회관과 하나음악정보쎈터, 평양교예극장과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평양시의 여러 야외조의식장들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들이 모셔졌다. 뒤이어 각 도소재지들과 여러 기관, 기업소들에 꾸려진 조의식장들에도 모셔졌다.

인민들은 놀랐다. 아니, 온 세계가 깜짝 놀랐다.

자애로움과 친근함, 인자함과 너그러움, 따스함과 포근함 그리고 비범한 예지와 통이 큰 담력과 배짱, 강인담대한 기상을 다 안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그이의 영상에는 인민들에게 기쁨과 행복, 환희와 열정, 승리와 영광을 다 안겨주시던 위대한 태양의 모습이 력력히 비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러르면서 인민들은 그이는 결코 자기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였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까지 우리 인민과 온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절세위인의 세심한 관심과 사색, 로고속에 마련되였다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에 대한 비보에 접한 일군들이 몸부림치고있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빨리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셔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나서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와 관련한 국가장의행사를 할 때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시도록 하여야 하겠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세상에 태여나기까지의 사연이 되새겨져 더더욱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할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을 매일같이 뵈오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태양상도 있었으면 하는 념원을 안고 살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록 자신과 관련되는 제기들은 일체 불허하시지만 인민의 절절한 이 념원만은 외면하면 안된다고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장군님의 태양상을 인민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창작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인민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새겨져있는 잠바옷차림을 하신 모습으로 형상할데 대한 문제와 절세의 위인상이 안겨오도록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으로 형상하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수령의 초상화형상창작문제는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자세와 립장에 관한 문제,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수령과 인민사이에 맺어진 혈연의 정을 공고히 하고 수령을 더욱 그리워하며 언제나 가까이에 모시고 살고싶어하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풀어주기 위한 숭고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처음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형상한다는

흥분을 안고 장군형의 위인으로서의 그이의 풍모면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면서 희세의 령장으로서의 위인상만 나타나도록 형상하려고 하였었다.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의도하시는것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그 어떤 대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장군중의 장군이심이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장군으로서의 장군님의 위인상을 형상하는것만으로는 만족할수 없고 반드시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잘 안겨오도록 형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인민들이 늘 뵈워왔고 인민들에게 익혀진 잠바옷차림을 하신 영상으로 형상할데 대하여서와 장군님의 절세의 위인상을 담으면서도 인민들에게 친근하게 새겨진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으로 형상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풍모가 다 안겨올수 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태양의 모습으로 간직하고 살아온 인민들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내놓으실수 있는 명안중의 명안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형상에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이에만 그친것이 아니다.

세상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경모해마지 않는 위대한 장군님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복잡다단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을 전진시켜오시면서 조국과 인민을 세계만방에 그 이름 빛내여주신 불세출의 위인,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에는 반드시 천하제일의 위인적풍모가 안겨오게 무게가 있으면서도 로숙하고 세련되게, 세월의 모진 고난과 시련을 다 이겨내시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오신 절세의 위인상이 존안의 세부세부에 력력히 새겨지게 형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더 완벽하게 형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하게 웃으며 찍으신 장군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자신께서 직접 품을 들여 한장한장 찾아내고 고르시여 일군들과 창작가들에게 보내주시였으며 때로는 직접 현지에 나오시여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형상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기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존안의 매 세부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신것으로 하여 장군님의 태양상은 세련되고 로숙하며 가장 완벽한 위인의 풍모를 보여주는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완성될수 있었다.

이 나라의 인민은 물론 온 세계가 격정과 충격속에 뵈옵게 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 눈내리는 영결의 거리들에서 태양의 미소로 인민들의 격정을 더욱 분출시킨 장군님의 태양상은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워하고 그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언제나 뵙고싶어하는 인민의 소원을 헤아려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와 가정들과 사무실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태양상으로 형상한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와 동상, 영상작품을 모시는 사업을 전체 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하여야 합니다.》

대국상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태양상을 뵈옵게 된 온 나라 인민들은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와 그이의 태양상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늘 우러르면서 살아가고싶은 마음속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인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잊지 못해하는 인민들의 지향을 외면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시고 그들이 언제나 장군님의 존귀하신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면서 생활할수 있도록 해주시였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고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가정과 사무실들에 모시면 그이를 어버이로 모시고 한식솔이 되여 살아온 우리 인민들이 그이의 체취를 느끼면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의 마음에 받들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이 평양의 장대재언덕을 비롯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모자이크영상작품으로 형상되여 정중히 모셔졌다.

온 나라의 가정과 사무실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가 모셔지게 되였으며 그이의 태양상초상휘장을 모시고 싶어하는 인민의 간절한 소망도 성취되게 되였다.

지금 이 땅의 그 어디, 그 어느 가정에 가나, 그 누구의 가슴을 보아도 태양의 환한 미소를 지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뵈올수 있다. 인민들은 일을 하면서도 그이의 사랑과 은정을 느끼고 장군님께서 보내시는 열정적이면서도 따사로운 태양의 미소를 우러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인민은 그 어떤 두려움도 모르고 배심이 든든하며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인민은 언제나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뵈오면서 그이와 마음속대화를 나누고있으며 장군님으로부터 친어버이의 가르치심을 받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하루의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이께 사업과 생활정형을 친자식의 심정으로 보고드리는것은 오늘 이 나라 인민들의 일과로 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지극한 경모심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태양의 모습으로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면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인민과 조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고계신다.

온 나라에 높이 모신 동상

오늘 평양의 중심부 만수대언덕과 각 도소재지들, 여러 단위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우리 조국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긍지에 넘쳐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고 더 밝은 래일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모습!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언제나 뵈워오던 한없이 인자하시고 열정에 넘치시던 생전의 모습, 생전의 옷차림그대로 거연히 서시여 인민들의 밝은 래일을 끝없이 보살펴주신다. 지어 청춘남녀들의 새 가정의 미래도, 빨간 오각별을 받은 자랑을 안고 찾아온 어린이들의 앞날도 따뜻이 축복해주신다.

진정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이 나라 인민들의 운명의 태양이시다.

이 위대한 현실, 수령영생의 위대한 경륜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1월초 일군들과 자

리를 같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장군님의 령전에서 다진 맹세를 잊지 말고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념원하신것들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첫자리에 놓고 일해나갈데 대하여서와 그를 위해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하게 잘 모셔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면 우리 인민들이 모두 좋아할것입니다.》

위인의 동상은 그가 생전에 인류앞에 남긴 업적이 잊혀지지 않고 먼 후날에도 영원히 빛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다.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쌓으신 업적이 너무도 크고 인류에게 안겨주신 사상과 리념, 뜻과 지향이 너무도 숭고하여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고싶은 념원을 품어왔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데 대하여 너무도 엄하게 막으시였기때문에 그이께서 서거하실 때까지 동상을 모시지 못하였었다.

그러다나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다음 인민들은 어디에 가서 장군님께 조의를 표시해야 할지 몰라 땅을 치며 통탄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장군님의 동상을 일찍 모시지 못한것이 너무 죄스러워 평생 가슴속에서 내려가지 않을것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기로 결심하시였다.

그이의 이 결심은 위대한 장군님께 자신이 다하지 못한 력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간절한 념원을 늦게나마 풀어주어야 한다는 시대적사명감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수령님의 동상과 함께 모시도록 하여 수령님들의 동상을 수령영생, 수령칭송의 기념비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2012년 1월 1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가 발표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념원과 간절한 요청을 반영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실것을 결정하였음을 엄숙히 공표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로동신문》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이다》가 게재되였다.

여기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어떤분이신가 하는것을 인민들이 알아야 한다. 생전에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 하나를 모시는 사업도 허용하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고결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그대로 알려주어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절감하고 더욱 강렬해지는 그이에 대한 흠모의 열기속에 장군님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모셔야 한다.

이것이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에 고이 간직된 의도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력사적인 담화에는 탄생 60돐을 맞으시는 자신께 동상을 모셔드릴것을 바라는 일군들의 제의를 일축하시고 오직 어버이수령님을 더 잘 받들어모시는 여기에 혁명전사의 본분이 있고 숭고한 도덕의리가 있으며 자신의 신념과 의지, 시대와 혁명의 요구가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신 장군님의 절절한 호소가 담겨져있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자신의 동상문제를 들고다니지만 자신께서는 청년들에 대한 기념탑을 잘 세워주려고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며 이런 현상은 절대로 묵과하지도 허용하지도 않겠다는데 대하여 단호히 말씀하신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이 력사적인 담화는 10여년이 지나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인민들은 력사적인 담화에 접하고서야 비로소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실 때까지 왜 그이의 동상을 한상도 모시지 못하였는가를 뜨거움속에 알게 되였고 그이의 한없이 겸허하신 풍모에 다시금 머리를 깊이 숙이였다.

인민들은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게 해달라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매일과 같이 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학생들까지 자기들의 궁전은 가는 곳마다 있는데 장군님의 동상은 왜 없는가고 하면서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을 보고싶다고 청원하였다.

민심은 천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이제라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잘 모시자고, 우리는 장군님을 영원히 도덕의리적으로, 량심적으로 진실하게 받들어모셔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함께 모시도록 하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인민들과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의 진리를 더욱 뚜렷이 새겨주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수령님과 장군님을 찾아뵙고싶어하는 인민의 념원을 풀어주시려는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제일 좋은 자리, 주변환경이 좋을뿐 아니라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

에 정중히 모실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신다고 하자 일부 일군들은 장군님의 동상을 따로 모시는것으로 리해하고 동상을 모실 적합한 장소를 찾으려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있었다.

이 모든것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먼저 만수대언덕에 모셔야 하겠다고 하시며 장군님의 동상을 모실 장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보았는데 만수대언덕에 수령님의 동상과 함께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는것이 제일 좋을것같다고 하시였다.

평양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올뿐 아니라 모란봉을 끼고 앞에는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며 아침해가 제일먼저 비쳐드는 만수대언덕. 이곳은 인민들이 기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께 아뢰는 곳이였다.

이러한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시면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며 인민들의 마음속생각도 헤아려주시고 부강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것으로 되게 될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실 위치를 확정해주신데 이어 새로 형상하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태양의 모습으로 가장 훌륭히 형상하여 모시도록 온갖 성의를 다하시였다.

위인의 동상은 마땅히 그가 지녔던 사상정신세계가 한눈에

잘 안겨오도록 형상하여야 사람들에게 위인으로서의 그의 업적과 사상정신적풍모를 똑바로 새겨줄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하여 모시도록 하시였으며 이미 모시였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들도 태양의 모습으로 다시 형상하여 모실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창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현지에 나오시여 뛰여난 안목과 예지로 동상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생동하게 형상하도록 손수 그림까지 그려가시며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어떤 때에는 몸소 선정하신 영상사진문헌자료들을 보내주기도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인민들은 이 사업에 너도나도 충정의 마음을 바치였다.

항일투사들은 고령의 몸으로 현장에 나와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고 평양시민들은 물론 온 나라의 인민들도 자기들의 마음을 표시하였다.

만포시인민들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새 살림집을 받아안고 그 은덕이 너무 고마워 알알이 골라 마련한 백미 100t을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기증하려는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원수님께

편지를 올리였다.

이들의 편지를 받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그러나 이 문제는 성의로만 받고 부결한다고, 수령과 혈연적관계를 이룬 우리 인민들이 수령께 바치는 이 백옥같은 마음은 자신께서 위대한 장군님께 그대로 보고드리겠다는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이렇듯 절세위인의 정력적인 지도와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떠받들려 만수대언덕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최상의 수준에서 모셔지게 되였다.

2012년 4월 어느날 이른아침이였다.

만수대언덕에 몸소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곳으로 자리를 옮겨가시며 새로 형상하여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보고 또 보시고나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그이를 모시고 만수대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제막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흰 제막포가 벗겨지자 환하신 미소로 태양의 축복을 보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안겨오고 참가자들의 우렁찬 합성이 울려퍼지던 그 시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들의 동상을 우러르시면서 조용히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가시였다.

그이의 심중에 한평생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시며 조국과 인민을 세계에 빛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눈물겨운 한생이 어려왔기때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에 초청되여 만수대언덕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제막식에 참가하였던 로씨야의 한 시인은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지난 시기 맑스의 유해가 이국땅 런던의 하이게트묘지에 안치되고 엥겔스의 유해를 넣은 함을 도바해협에 흘러보낸 소식들은 유럽사람들을 슬프게 하였다.

혁명의 배신자들이 쓰딸린의 시신을 화장해버리고 그의 동상들을 없애버린 행위를 두고 뜻있는 사람들은 분노를 금치 못해하였다.

이런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평양의 동상제막식행사는 참으로 큰 대조를 이루며 세계를 감동케 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수령은 영생하여야 한다.

그것은 수령의 영생속에 그 나라 인민의 행복, 미래가 달려있기때문이다.

조선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후 그이의 동상을 모신것은 바로 이 성스러운 위업실현의 뚜렷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

인류사를 더듬어보면 동상을 흔히 엄숙한 모습으로 형상하여왔다.

허나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의 전례를 따르지 않고 만민으로부터 태양으로 칭송받으신 수령들이시기에 두분들의 동상

을 환한 미소를 지으신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하도록 하시였다고 한다.

참으로 깨끗하고 무한한 충성의 세계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수대언덕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태양의 모습으로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하시였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함경남도와 강원도를 비롯한 각 도들은 물론 만경대혁명학원과 인민군대의 여러 단위들을 비롯하여 곳곳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모시도록 해주신 그이께서는 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였던 그날 국가과학원에 과학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태양상으로 잘 형상하여 모시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태양상으로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시게 되면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이 수령님들을 늘 뵈옵고 수령님들께 마음속진정을 터놓으며 사업하고 생활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절세위인의 이렇듯 지극한 경모심에 떠받들려 태양상으로 형상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국가과학원에도 모셔지게 되였다.

진정 온 나라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은 절세의 위인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결정체이다.

3. 태양의 력사 영원히 흐르도록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 60
영원한 태양의 존함 ································ 68
유일무이한 수령영생법전 ··························· 75
수령영생궁전—금수산태양궁전 ······················ 83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는 성지로 ············ 92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주신 신념의 구호 ······100
민족최대의 명절—광명성절 ······················· 109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위업을 영원히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수령이 창시한 사상을 변함없는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선대수령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실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며 또 마음먹는다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도 아니다.

선대수령에 대한 지극한 경모심을 가장 높은 경지에서 지니고 수령과 마찬가지로 인민의 지향과 요구, 념원의 최고체현자인 참다운 후계자, 령도자만이 수행할수 있는 성스러운 사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시여 이 땅우에 태양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도록 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민족대국상의 나날부터 인민들은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과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면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하루빨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모시고싶은 자기들의 마음을 열렬히 토로하여왔다.

당시 일군들은 인민들의 이러한 념원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고드리였었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자신의 추대문제가 아니라 장군님을 변함없이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는 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시였다.

주체101(2012)년 1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전화를 걸어주시였다.

며칠전 그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으로부터 자신께서는 지금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실 생각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일군들의 의견을 들어볼데 대한 과업을 받았었다.

일군들모두가 찬성한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자고 합니다. …

그러시고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는 것은 상징적인것이 아니라고,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장군님께

보고도 드리고 마음속대화도 나누면서 장군님식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자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위대한 장군님을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시게 되는 근거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밝혀주고나시여 우리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모신다는것을 내외에 선포하여야 한다고 엄숙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당건설과정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새로 제정하는 당규약에 뚜렷이 밝힐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해 2월 어느날 그 일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였다.

일군을 반갑게 맞아주신 그이께서는 수령님탄생 100돐을 맞는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당대표자회를 하자고 한다고, 자신께서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자고 한다고 하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 모든 사업을 장군님뜻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고있다는데 대하여서와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령도자이시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밝히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 방침을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을 강화발전시켜오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보아도 우리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셔야 한다.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는것은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

이어 그이께서는 이번 당대표자회를 혁명의 위대한 수령들을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영원히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력사적인 회의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그러므로 당대표자회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대표자회 첫째 의정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데 대한 문제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소집할데 대하여》가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였다.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 선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대표자회를 주체101(2012)년 4월중순에 소집할것을 결정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의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는 당대표자회, 그것도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이듬해에 열리는 당대표자회인것으로 하여 그 무게와 의미는 대단히 컸다. 그래서 세계의 시선은 조선에 집중되였다.

당대표자회소집에 관한 소식에 온 세계는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최고사령관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되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기정사실》이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억측과 예측을 내돌리였다.

하지만 조선의 현실은 그 모든 예측과 억측, 상상력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00일중앙추모대회가 엄숙히 거행된 때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12년 4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번에 진행되는 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에 맞게 당규약을 수정보충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이번 당대표자회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하는 전환적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수령님의 후손들이며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신념과 의지,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떻게 떨쳐나섰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지대로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실데 대한 문제가 만장일치로 토의결정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지극한 경모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중대결단이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는것은 오랜 기간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여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보나 장군님을 잊지 못해하는 전체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과 념원, 도덕의리적면에서 보아도 너무도 응당한것으로 된다고 확신하시였다.

당대표자회소식이 전해지자 세계는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진행, 대표자회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 《세계정치계의 예상을 뒤엎은 대표자회》, 《선대수령을 받드는 **김정은**부위원장, 세계가 그이앞에 머리를 숙이다.》라고 하면서 놀라움과 경탄을 표시하였다.

온 세계가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소식으로 끓고있는 속에 평양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전체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국가정치체제를 확립하시여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문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음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 법령이 발포되자 세계는 또다시 위인칭송으로 설레였으며 우리 인민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위대한 장군님은 영생하신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개회사에서 대표자동지들과 전당의 당원들,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고 건설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린다고 하신것은 인민의 이러한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그대로 피력하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어느 한 자리에서도 일군들에게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한 우리의 수령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주체조선의 영상으로 영원히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시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크나큰 혁명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주체조선의 거룩한 영상!

바로 이 호칭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이였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다.

영원한 태양의 존함

태양은 영원하다.

아마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이처럼 영원함은 태양의 첫째가는 징표라고 할수 있다.

인류의 태양의 영원함은 곧 그의 위대한 존함의 영원함을 의미한다.

인민의 태양!

이 말을 되뇌일 때면 누구라 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먼저 떠올리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김정일, 이는 그대로 태양의 존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어느 한 나라의 시인은 자기의 심정을 시 《태양의 존함 **김정일**》에 담아 이렇게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

아 **김정일**!

그이는 인류의 영광이며 행복

그이는 세계의 희망이며 미래

만대에 길이 빛나라 불멸의 존함

아 **김정일**! **김정일**!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주체조선에 대한 세계의 열풍은 식을줄 몰랐다.

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있는 조선열풍은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직결되여있었다.

그이의 존함은 세계의 광범한 출판보도물들에 꺼질줄 모르는 등대처럼 투쟁과 생활의 앞길을 밝히는 기치로 나붓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는 시대를 선도하시던 걸출한 위인, 인류의 태양을 잃었다.

얼마나 위대한분을, 한없이 열렬한 태양을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온넋으로 절감한 인민들과 진보적인류는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그이의 존함을 목놓아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존함을 길이 빛내이는것은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장군님과 우리 인민들의 끊을수 없는 혈연의 정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여야 합니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의 모습으로 인민들의 가슴속에 꽉 차있으며 그이의 존함이 대대손손 인민의 앞길에 기폭처럼, 등대처럼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것은 이 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존함을 영원히 마음속에 안고 살려는 인민들과 진보적인류의 념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비로소 성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을 제정하시여 장군님의 존함과 태양상이 조국과 인민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사회주의운동력사에는 수령이 이룩한 공적과 위훈을 후세에 전하고 력사에 새기기 위하여 그의 이름을 훈장이나 거리 등에 붙인 사실들을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거나 그의 공적이 후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실도 력사는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이것은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운명의 필연이다.

이런 의미에서 령도자가 위대해야 선대수령의 넋과 공적이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새겨

보게 된다.

주체101(2012)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돐에 즈음하여 장군님의 불멸의 존함과 태양상을 모신 최고훈장, 최고상인 **김정일**훈장, **김정일**상,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을 제정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과 태양상을 모신 최고훈장과 최고상을 제정한것은 그이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부강조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완성할 인민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의 반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으로 보아 그이의 존함을 모신 최고훈장과 최고상은 마땅히 이미전에 제정되였어야 하였다.

하지만 한평생 위대한 수령님만을 따르며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이러한 제도는 제정될수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자신을 늘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전사라고 하시며 자신을 내세우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그래서 인민들은 그이를 친애하는 지도자, 위대한 령도자로밖에 부를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최고훈장과 최고상이 제정되

게 된것은 인민들의 한없는 그리움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길이 빛내이고 그이의 성스러운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고결함과 위대함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존함을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극한 경모심은 어버이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에도 깃들어있다.

인생에서 시간보다 더 귀한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한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일 아끼는것도 바로 시간이다.

이처럼 시간이 귀중하기에 사람들은 시계의 초침에 맞추어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한해를 맞고보내며 시계처럼 정확히 인생을 빛내이기 바란다.

결국 시계는 매 인간의 생활에서 지어 인류력사발전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류문명의 창조물이 태양의 존함과 결부됨으로써 그 지위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제정하고 수여하는 사업은 철두철미 인민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기도록 하고 장군님의 존함을 영원히 안고 살고싶어하는 인민들의 념원을 풀어주는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늘 보면서 그이께서 조

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처럼 아끼시던 혁명시간과도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한생을 빛내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웅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기에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제를 제정해주시였던것이다.

사실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제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오래전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계시였었다.

하지만 한없이 겸허하고 소박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만류에 의해서,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는 그이의 확고한 결심에 의하여 지금껏 제정되지 못하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의하여 마침내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이 제정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이 빛나게 관철되게 되였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장군님의 체취와 숨결로 여기고 그이의 뜻대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자기의 삶을 빛내이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도 성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의 첫 수여자들을 선발하는 사업도 수령의 영생을 지켜드리기 위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태양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는 마땅히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한마음을 안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자기 초소에서 묵묵히 한생을 바쳐가고있는 평범한 사람

들에게 수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그 대상자들을 평범한 과학자, 기술자, 로력혁신자, 군인들로 선발하도록 하시였다.

그리시고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을 수여받게 되는 사람들을 평양에 불러 표창사업을 진행하며 표창수여식에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여 축하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날이 갈수록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는 인민들은 그이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존함을 승리의 기치로 간주하고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이 땅우에 일떠세울 일념으로 가슴불태우고있다.

유일무이한 수령영생법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들의 거룩하신 존엄과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이 나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념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이러한 신념과 절절한 념원을 깊이 헤아리시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태양의 성지로 더욱 훌륭히 빛내주시는 수령영생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여 궁전이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태양의 성지로서의 성격이 뚜렷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태양의 집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그리움의 대하가 끊임없이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입니다.》

수령을 모시는 전당의 이름을 어떻게 명명하는가 하는것은 단순한 명칭문제가 아니다.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자세와 립장문제이고 인민의 마음속에 수령의 영생을 지켜드리기 위한 정치도덕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수령의 영생을 지켜드리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수령을 모시는 전당의 이름을 말그대로 인민의 수령, 인민의 태양을 모신 성지로서의 성격이 살아나게 명명하는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원래 금수산기념궁전의 이름은 금수산의사당이였다.

금수산의사당은 일찌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길에 나서시여 그 길에서 인간이 겪을수 있는 온갖 고난과 시련, 이 세상의 만고풍상을 다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집무실 하나 변변히 마련해드리지 못한것을 두고 깊이 마음써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과 념원, 지성을 합쳐 수령님께 지어올린 집무실청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 집무실청사에서 부강조국건설과 인류자주화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인민들의 가슴속에 사무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그이의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인민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부르도록 하여주시였다.

그때부터 금수산기념궁전은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주체의 최고성지로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은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마음의 기둥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그래서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이후 절세의 위인들을 함께 모시고 수령님들의 영생을 기원하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슴속깊이 안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으신 업적으로 보나 숭고한 덕망과 고매한 풍모로 보나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들과도 대비할수 없이 출중한 위인중의 위인, 우리 인민과 민족, 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흠모하고 따르는 태양이시다.

그런것만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 전당이 반드시 태양의 품격에 맞게 명명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고 마땅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금수산기념궁전을 태양의 집으로서의 성격이 살아나게 이름을 새롭게 명명하는것은 시대의 요구라고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101(2012)년 1월 12일 특별보도를 발표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간절한 요청을 반영하여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위대한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는것을 온 세상에 엄숙히 공표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오늘 태양민족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이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그대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태양의 성지라는 의미와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할것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에 제의하였습니다. …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할데 대한 제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그대로 영생하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세세년년 빛내여가려는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반영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하기에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 인류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위인들이신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신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2012년 2월 16일 주체의 최고성지에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결정을 공표하는 행사가 엄숙히 거행되였다.

이렇게 되여 수령영생의 유일무이한 궁전을 뜻하는 금수산태양궁전이라는 새로운 고유어가 태여나게 되였으며 수령영생위업실현에서 또 한페지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날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장군님을 훌륭한 의사당에 모시지 못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천추의 한을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다음에라도 풀어주기로 결심하고 장군님을 수령님과 꼭같이 금수산기념궁전에 모시도록 하였으며 인류의 태양을 높이 모신 대전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이 뚜렷이 살아나게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였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전당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하는것과 함께 우리 인민의 존엄의 상징으로 영원히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제정할것을 발기하시고 이

사업을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느날 일군들에게 금수산태양궁전과 같은 궁전은 이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금수산태양궁전은 전체 조선민족의 영원한 성지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한다는것을 법화할데 대하여 엄숙히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법초안이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인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할데 대한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며 그 누구도 다칠수 없게 백방으로 결사보위할데 대한 국가적의무를 규정하도록 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제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여러 차례 지도하시면서 법을 더욱 완성시켜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령영생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

영한 법으로서 세상이 일찌기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의 법전이다.

무릇 법은 해당 나라의 공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키고 준수하여야 할 사회적행동규범이다.

법은 그 어떤 개인이나 개별적집단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시키거나 없앨수 없다. 그만큼 법은 공고하고 변함이 없는것으로 특징지어지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무겁게 대하게 된다.

정녕 력사에 전무후무한 수령영생의 법전의 채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또 하나의 특기할 업적으로 된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법전인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제정!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민의 절절한 소원을 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가 있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됨으로써 수령의 영생을 지켜드리기 위한 법적담보, 인민의 영원한 마음의 기둥을 억척으로 다져주는 법전이 마련되게 되였다.

일반적으로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법들은 주권을 쥔 계급의 리익을 국가적의사로 표현한것이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담보되는 행동규범의 총체로서 어디까지나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리용되는것이 통례로 되여있다.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법전을 뒤져보아도 인민을 위

하여 자기의 한생을 다 바친 위인들의 영생을 법적으로 담보한 조항은 없다.

지난 시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지울수 없는 업적을 남긴 로동계급의 수령들의 영생은 그 어떤 법적담보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배신자들에 의하여 수령의 시신이 훼손되는 비극까지 벌어지게 되였다.

수령의 영생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길에서 수령이 창시한 사상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으로 쌓은 불멸의 업적에 대한 인민의 깨끗한 마음의 반영이며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을 수령에 대한 인민의 불변의 신뢰심에 의해서만 억척으로 담보된다.

하지만 인민의 소원과 의사가 아무리 강렬하다고 하여도 수령의 영생이 저절로 지켜지거나 완벽하게 성취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오직 고결한 량심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인민의 지향과 요구를 자신의 실천으로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인민의 령도자에 의해서만 완전무결하게 이룩될수 있다.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의 법전을 마련해주시고 인민들로 하여금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최고존엄의 상징으로, 민족번영의 유산으로 대대손손 빛내여나갈수 있는 법적담

보를 가지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져 길이 빛날것이다.

수령영생궁전－금수산태양궁전

세계에는 국가령도자들과 위인들의 공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건설된 릉묘들과 기념당, 성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금수산태양궁전처럼 인민이 우러르는 운명의 태양, 불세출의 위인들을 생전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내용과 형식, 규모에서 그처럼 숭엄하면서도 완벽하게 꾸려진 수령영생의 대전당, 성지는 없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그이께 일찌기 훌륭한 집무실청사를 지어드리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훌륭한 집무실을 마련해드리는것은 그이께서 이룩해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보나 도덕의리적으로 보나 너무나도 응당한것이였다.

자신을 위한 일은 비록 사소한것이라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인민의 행복만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검소한 집무실과 야전렬차에서 사업하시다가 순직하시였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훌륭하게 꾸려 늦게나마 도덕의리를 다하고싶은것이 이 나라 인민의 간절한 소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그 마음을 담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전당으로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실 확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은 단순한 건축예술의 산물이 아니라 자기 수령에 대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백옥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온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과 마음이 합쳐져 대하처럼 흐르는 혁명의 성지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여러 기회에 금수산기념궁전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함께 모신 다음 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 잘 꾸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것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지켜야 할 도덕의리이라고 하시면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세상에 없는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실 굳은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그이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완벽하게 꾸리기 위하여 바치신 로고와 심혈, 뜨거운 지성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영생홀을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들과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꾸리는 문제 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령도풍모를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는 문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세상에 둘도 없는 영원한 태양의 집으로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주체101(2012)년 한해에만도 무려 수십여차례나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구체적인 과업들을 주시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바치신 심혈과 로고, 불보다 뜨거운 그이의 지성은 말그대로 백옥같이 깨끗하고 순결한것이였다.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꾸리면서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신 태양의 성지로서의 품위에 맞게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모든 세부들과 공간들을 형성함으로써 숭엄하면서도 완벽한 수령영생의 대전당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모실 홀을 새롭게 개작할 때였다.

립상홀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들어서는 곳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민들에게 한없이 친근하면서도 인자하신 영상이 안겨오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형상하겠는가에 대하여 사색을 거듭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사람들이 홀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오늘도 우리들을 이끌어주신다는것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오신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모습,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친숙해진 한없이 인자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모습이야말로 립상홀에 모실 수령님들의 모습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런 의지를 지니시고 주체101(2012)년 1월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형상문제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이어 그후 현지에 나오시여 형상사업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여러 차례에 걸쳐 현지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 립상홀에 모실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보아주시면서 립상을 보다 완벽하게 모실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생전의 모습과 다름없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연색립상이 숭엄하게 모셔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깊이 슴배여있는 사적물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장군님가까이에 전시하여 인민들이 대대손손 그이의 로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

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이끌어오시는 나날에 수많은 사적물들을 남기시였다.

그가운데서 특별히 의의를 가지는것이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승용차와 렬차, 전동차와 배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한평생을 돌이켜볼 때마다 인민의 마음속에 맨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적물은 이 나라의 길이란 길들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야전승용차와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리용하신 야전렬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리용하시던 야전렬차와 승용차, 전동차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전시할것을 구상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렬차와 승용차를 보존할 방들을 잘 꾸릴데 대하여 말씀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렬차와 승용차, 전동차보존실을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보존실꾸리기가 한창이던 때에는 금수산태양궁전에 또다시 나오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야전렬차내부가 장군님의 생애의 마지막시기의 환경을 그대로 보여줄수 있게 꾸려지도록 깊이 마음쓰시였다.

하기에 오늘도 금수산태양궁전에 보존되여있는 야전렬차앞에서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에 뜨거운것을 감추지 못한다.

인민을 찾아 달리던 야전렬차의 창밖으로 흘러간 날과 달은 그 얼마였고 엇바뀌며 스쳐지나간 삼복철의 무더위와 대소한의 강추위는 또 그 얼마였던가.

참으로 두줄기 궤도를 달리는 기차가 출현한이래 위대한 장군님처럼 렬차강행군속에서 명절날과 탄생일을 맞고보내시며 렬차에서 생활하는것을 습관으로 하신 령도자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렬차와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야전렬차는 하많은 사연을 그대로 안고있는 력사의 증견자, 수령님과 장군님의 숨결과 체취가 력력히 슴배여있는 뜻깊은 사적물로 수령님들가까이에 그대로 보존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배의 보존실을 보다 숭엄하게 꾸리기 위하여서도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이 배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여년간 리용해오신 배로서 고난의 행군시기 풍랑사나운 바다길을 헤치며 인민군군인들을 찾고찾으신 사적을 비롯하여 많고많은 사연들을 안고있는 배였다.

어느날 금수산태양궁전공사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배에 장군님의 령도사적이 많이 깃들어있는것만큼 그 배를 금수산태양궁전에 보존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배를 보존하는 문제를 단순한 사적물보존문제로 여기지 않으시였다.

그이께 있어서 사적배를 보존하는 문제는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풍모와 불멸의 생애를 길이 전하기 위한 수령영생에 관한 문제, 언제나 장군님께서 헤쳐오신 풍랑세찬 바다길을 잊지 못해하는 인민의 절절한 소망과 념원을 풀어주기 위한 인민사랑에 관한 문제였다.

그래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적배의 세부는 물론 배가 바다우에서 전진할 때 일어나는 물결의 방향과 참관자들이 사적배를 보아야 할 위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관심하시였다.

2012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사적배보존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시던 배를 가져다놓기 정말 잘하였다고 젖으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장군님께서 리용하신 배까지 들여다놓았으니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셈이라고 하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는 사람들은 궁전의 복도벽들에 모셔져있는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보면서 수령님들의 불멸의 생애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영생하신다는 신념을 굳게 가다듬고있다.

바로 여기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지극한 경모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 금수산태양궁전을 그 성격과 품위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기울이신 그이의 령도의 손길이 어려있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를 품위있게 꾸리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수령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영상사진문헌들을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것이다.

수령의 위인상이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담겨져있는 영상사진문헌들을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부문별에 따라 모시면 그것이 곧 수령의 혁명활동에 대한 생동한 인식과 체험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도록 하시고 영상사진문헌들의 내용과 영상사진문헌액틀형식, 영상사진문헌의 설명판내용과 크기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그 하나하나의 가르치심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그이의 백옥같이 깨끗한 마음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명안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을 새로 꾸리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도 잘 꾸리도록 그 형성안과 보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신것을 비롯하여 궁전정면벽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를 모실데 대한 문제, 광장주석단밑에 대원수별과 목란꽃, 군기들을 부각하여 새길데 대한 문제, 궁전정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을 설치할데 대한 문제, 궁전의 불장식을 잘할데 대한 문제 등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은 궁전의 모든 공간들과 세부들에 력력히 어리여있다.

이렇게 궁전의 내부와 외부의 모든 세부들과 공간들은 태양궁전의 성격에 맞게 숭엄하면서도 완벽하게 꾸려지게 되였으며 오늘도 금수산태양궁전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궁전의 최고정화로 빛을 뿌리고있다.

언제나 인민과 함께 계시는 성지로

무릇 성지라고 하면 무게와 정중성이 최대로 보장되고 숭엄한 감정이 안겨오도록 하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더우기 생전에 나라와 인민을 위해 업적을 남긴 위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업숙하기 전에 수령과 인민이 언제나 한데 어울려앉아 가정사도 의논하고 기뻤던 일은 물론 마음속고충도 털어놓으며 사는 대식솔의 모습을 펼치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의 내부는 물론 외부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사랑하신 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태양의 성지로 보다 훌륭히 꾸려지게 된데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와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상에 인사를 드리고 휴식도 할수 있게 태양궁전광장을 공원화하고 새 품종의 잔디를 심어 록지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을 발기하신데는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맺어진 혈연의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려는 웅심깊은 의도가 담겨져있었다.

수령영생은 결코 상징적인 말이 아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곳으로, 아무때나 인민들이 찾아와 뵈올뿐 아니라 자기들의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마음속사연까지도 다 아뢰는 곳으로, 인민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성지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의지였다.

그이께서는 이러한 의지를 안으시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한평생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들속에 계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사랑하는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공원을 꾸리도록 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3월 어느날이였다.

이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100일이 되는 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금수산태양궁전은 말그대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신 태양의 궁전인것만큼 인민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곳

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광장을 늘 개방하여 우리 인민들이 찾아가고싶으면 아무때나 찾아갈수 있는 곳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들과 맺으신 혼연일체의 뉴대를 끝없이 이어가도록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의지가 마디마디에 슴배여있는 말씀이였다.

예로부터 가를래야 가를수 없고 깨뜨릴래야 깨뜨릴수 없는 관계를 혈연의 관계라고 일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과 맺으신 관계가 바로 그러한 혈연의 관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인민사이의 혈연의 관계는 하루이틀사이에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수십성상에 달하는 오래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이루어지고 공고해진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장구하고도 험난한 길을 헤쳐오면서 혈연의 정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 고난과 시련을 같이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었다. 수령님들의 절대적믿음은 인민의 힘이였고 리상과 한생의 목표는 인민의 행복한 삶 그자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의 취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 외국의 기자들에게 책읽기를 좋아하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과 함께 지내며 이야기를 나누는것이 자신의 취

미라고, 책이 말없는 스승이라면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박식한 선생은 인민이라고,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문학도 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늘 인민들속에 들어가 인민들에게서 배우고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속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과 함께라는 신조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표대였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건설장에 가면 로동자들과 함께 한번 허리가 휘도록 목도도 메고싶고 체육경기를 할 때는 자신께서도 운동장에 뛰여들어 한바탕 달리고싶으며 오락회를 하는것을 보면 자신께서도 그들 틈에 끼워 한곡조 뽑아보고싶다고, 더우기 밤늦게 일하다가 피곤이 몰리거나 머리가 아플 때면 인민들을 찾아갈 생각이 불쑥불쑥 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듯 자애롭고 위대하신분들이시기에 인민은 언제나 자신들과 한치의 간격도 두지 않고 생활하시면서 정을 주고 사랑을 주시던 수령님들의 인자하신 영상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들과 맺으신 끊을수 없는 혈연의 관계, 친어버이를 잊지 못해하는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는 성지로 훌륭히 꾸리실 결심을 더욱 굳히시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의 정면에 높이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초상화를 중심축으로 하여 갖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여난 화단이 펼쳐져있고 그 량옆으로 푸른 주단을 깔아놓은것처럼 펼쳐진 새 품종의 잔디밭, 그속에 특색있게 형상된 분수조각 그리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속에 공원휴식구들이 들어앉은 궁전광장공원은 태양궁전의 무게와 풍치를 한껏 돋구고있다.

인민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지극한 경모심과 인민사랑의 가슴뜨거운 사연을 웅변으로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내부를 구상하시던 그때에 벌써 금수산태양궁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생전의 모습그대로 모신 곳인것만큼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뜻깊은 곳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간주하시였다.

그이의 심중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그 주변을 태양의 성지답게 숭엄하게 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을 잘 모시여 수령님과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인민들이 언제나 수령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수령님들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가슴깊이 새길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것, 그리하여 수령님들을 그리워하는 인민의 대하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지가 맥동치고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아무때나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휴식도 할수 있도록 태양궁전주변을 공원으로 잘 꾸릴수 있게 설계형성안도 보아주시였으며 공사 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태양궁전광장에 원림을 조성하고 나무와 꽃들을 많이 심을데 대하여서와 화단형성방법과 잔디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 태양궁전주변에 록지를 조성하고 사이사이에는 길을 내주며 사람들이 앉을자리도 만들어줄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주시였다.

2012년 9월말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잔디심기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몸소 현지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오늘 금수산태양궁전광장 록지구역에 새 품종의 잔디를 시범적으로 심게 된다고 하시면서 새 품종 잔디의 특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였다.

이윽고 보드라운 흙이 일매지게 깔려있는 작업장에 앞장서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잔디밭지반조성은 어떻게 하며 잔디씨는 어느 정도 되게 뿌려야 하는가, 잔디씨를 뿌린 다음 복토두께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등 잔디심기와 관련한 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자까지 들어가며 일일이 가르쳐

주시였다.

새 품종의 잔디를 육종하기 위해 바치신 그이의 지성이 얼마나 불같은것이였는가 하는것은 정원에 잔디시험포전을 꾸려놓으신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푸른 잔디밭이 펼쳐진 태양궁전광장공원을 위대한 수령님들과 인민들사이에 혈연의 정이 굽이치는 뜻깊은 곳으로 되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과 사랑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 새 품종의 잔디는 자기의 잎새를 한껏 펼치였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광장공원의 풍치를 한층 돋구기 위하여 원림형성안을 새롭게 작성하고 섬잣나무, 느티나무, 백송, 종비나무, 붉은 단풍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이 좋은 키큰 나무들과 꽃관목들을 심도록 하시였다. 이곳을 찾는 인민들을 위해 여러개의 휴식구들도 공원의 풍치에 어울리게 잘 꾸려놓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2013년 태양절을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이 드디여 완공될수 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단순히 원림예술의 산물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들께서 인민들과 맺으신 혈연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

는 공원, 인민들이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나갈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는 곳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의도와 그 실현을 위해 바치신 심혈과 로고가 낳은 수령영생의 대화원이다.

수령의 영생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지켜드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인류의 태양과 인민이 함께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가 보다 완벽하게 꾸려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 바치신 그 모든 로고는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시고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훌륭히 꾸리는데 온갖 지성을 다 바친 인민들의 마음을 값높이 여기시여 몸소 감사문까지 보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감사문에서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화원이며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펼쳐진 인민의 공원이라고 하시였다.

오늘도 이 나라 인민들은 태양의 성지를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념원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결의를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잘 받들어모시고 대대손손 행복하라고 낮이나 밤이나 자애로운 태양의 미소

로 축복해주신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민모두의 절절한 소원을 풀어주시고 수령님들과 인민들사이에 오고가는 혈연의 정을 영원히 새겨주기 위하여 바치신 절세위인의 끝없는 헌신이 있어 금수산태양궁전은 오늘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주체의 최고성지로 빛나고있다.

인민의 심장속에 새겨주신 신념의 구호

수령의 참다운 영생은 인민의 마음속에서의 영생, 인민의 심장속에서의 영생이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인민들이 수령을 이 세상 가장 위대한분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 뜻대로 살며 수령이 언제나 자기들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신다는것을 심장에 새겨안고 투쟁해나가는 바로 그것이 수령의 영생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새겨주시고 언제나 장군님과 함께 계신다는것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아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온 나라에 장군님의 태양의 력

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온 나라 인민들이 민족의 대국상을 치르고 피눈물의 해를 보내던 주체100(2011)년 12월 31일이였다.

이날 《로동신문》에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발표되였다.

공동구호의 구절구절을 읽어나가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한곳에서 멈추어섰다.

대국상의 그날로부터 인민들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고패친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가 그대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높이 들고나가야 할 수령영생의 구호로 제시되였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구호는 한평생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장군님은 절대로 우리곁을 떠나지 않으시였으며 오늘도 그이의 인민사랑은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는 신념을 굳게 간직하게

한다.

위대한 장군님은 한평생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조국과 인민의 부강번영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오시였다.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편치않으시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우리 함께 힘을 내여 조국통일도 앞당기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도 앞당겨오자고 일군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주시던분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외국방문의 길에 쌓인 피로도 풀지 못하신채 그길로 인민들을 찾으시고 더 좋은 일을 해놓으면 꽃다발을 안고 찾아오겠다고 하시던 그이의 말씀을 결코 잊을수 없기에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던 그이의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이 나라의 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피눈물의 해가 저물어가던 그 마지막날에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장군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시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자신은 장군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있기때문에 마음이 든든하다고, 장군님은 자신의 심장속에,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구호의 참뜻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적들은 알려고 하여도 알수 없을것이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력사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같이 태양의 존함과 모습으로 인민들의 가슴속에, 진보적인류의 기억속에 새겨지고 만민의 격찬을 받은 위인은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은 그 어떤 력사의 선언이나 찬가가 아니다.

시대와 인류앞에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 풍모의 숭고함과 고결함이 인민의 숨결과 맥박속에 함께 고동치고있기에 수령님과 장군님은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것이다.

그처럼 위대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당과 국가의 영원한 수령으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만사람들의 경모의 인사를 받고계시며 그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신다.

지금도 세계의 곳곳에서는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출판되고있으며 그이께서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로부터 명예칭호와 훈장, 진귀한 선물을 받고계신다.

진정 고결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한평생 인민을 위해 불멸의 업적

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속에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인민들의 신념이 반영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글발이 모셔진 영생탑을 건립하여 수령님들의 태양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지극한 경모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각지의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영생탑이 훌륭히 건립되여있다.

절세위인들의 영생탑은 단순한 건축구조물인것이 아니다. 그자체가 곧 이 나라 인민의 힘이고 존엄이며 긍지이고 영예이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신념의 기둥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영생탑을 건립하도록 하신 그이의 숭고한 의도이다.

하기에 인민들은 세상에 없는 수령영생탑을 우러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그려보고있으며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속에 그분들을 길이 모셔갈 신념의 맹세를 굳게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들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신념은 저절로 형성되고 굳건해지는것이 아니다.

실천을 통해 그 진리성과 정당성을 확신할 때 사람들이 심장속에 간직하게 되는것이 바로 신념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온 이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받들어모시려는 신념이 확고히 자리잡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되여있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신뢰심을 더욱 굳게 해주기 위하여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령영생주제의 기록영화들과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하시였다.

그 나날 그이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와 관련된 애도기간 조의행사와 영결식행사를 수록한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가 훌륭히 창작완성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직후부터 추모행사의 전 과정을 폭넓게 수록한 기록영화편집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과 지방을 비롯한 공화국에서는 물론 남조선과 전세계적규모에서 숭엄하고 경건하게 진행한 추모행사

장면들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력사적인 화폭들로 모두 담도록 하시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던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의 제1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리》 전편을 보아주시였다.

영화가 끝났지만 그이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편집을 정말 잘하였다고, 너무 눈물이 나와 기록영화를 제대로 볼수 없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매 화면들에서 인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깊은 산중초소의 병사들도 울고 바다가의 녀성해안포병들도 몸부림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비행사들도 우는 모습들을 보니 더 눈물이 나온다고 조용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특히 기록영화에 어느 한 섬초소의 전사들이 12월의 차디찬 바다물에 풍덩풍덩 뛰여들면서 평양쪽을 향하여 장군님은 절대로 가시면 안된다고 목놓아터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고, 애도기간 우리 청년들의 티없이 순결한 사상정신상태를 보여주는 화폭들도 매우 감동깊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위대한 태양의 영생실록인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제2, 3부가 나왔다.

제2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리》는 온 겨레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는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의 모습을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장군님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높이 우러러받든 영원한 민족의 어버이이시라는것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제3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리》는 사상과 정견, 피부색과 언어가 각이한 세계의 수많은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한 력사적 사실을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장군님은 우리 겨레뿐 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철리를 실감있게 펼쳐보이고있다.

조선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를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갈 훌륭한 영화로 만드시기 위하여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는 제4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리》를 보다 훌륭히 완성하도록 세심히 지도해주신데도 력력히 어리여있다.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기록영화를 보아주시며 사적자료와 그에 대한 해설은 물론 문장표현에 이르기까지 하나

하나 부족점을 깨우쳐주시고 바로잡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를 수록한 여러편의 기록영화들을 창작하도록 하시여 전체 인민의 심장속에 장군님의 영상과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주고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이 억척으로 간직될수 있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영생의 기록영화수록사업과 함께 수령영생주제의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하시여 인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장군님은 영생하신다는 신념이 더욱 굳게 자리잡도록 하여주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보낸 추모의 100일간에만도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충정의 마음을 담은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오성산》, 작품집 《선군태양은 영원하다》, 《영원히 함께 계셔요》, 추모설화집 《강산이 운다》, 시 《**김정일**장군의 인민이여 일떠서라》, 추모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전에》, 전인민적송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조선의 힘》, 《그리움은 끝이 없네》를 비롯하여 3 560여편의 문학예술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이렇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하고도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글발들이 모셔지고 수령영생의 참뜻을 새겨주는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짐으로써

인민들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철리가 반석으로 자리잡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력사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흐르게 되였다.

민족최대의 명절—광명성절

오늘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의 진보적인류는 해마다 태양절과 함께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면서 불세출의 위인, 전설적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의 세계를 온 누리에 펼쳐놓고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영생의 새 전기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극한 경모심이 뜨겁게 어려있다.

주체101(2012)년 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다는것을 특별보도로 온 세상에 알리였다.

광명성절의 제정, 이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절절한 소망을 풀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변이였다.

우리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2월 16일을 주체조선의 대경사로,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면서 태양절과 함

께 이날을 뜻깊은 날로 더욱 빛내여줄것을 벌써 오래전부터 거듭 절절하게 청원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1992년 2월 백두산이 낳은 또 한분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여 《광명성찬가》를 몸소 지으신데 이어 그이의 탄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제정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력사적인 친필을 남기시였었다.

하지만 한없이 겸허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듭되는 만류로 당시 정령은 발표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다가 그로부터 3년후에야 비로소 발표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는것은 장군님에 대한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장군님탄생 70돐이 되는 2012년에 비로소 실현되게 되였다.

그이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지 못하고 명절을 맞이하는 인민의 비통한 심정,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장군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을 깊이 헤아리시여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태양절과 더불어 인민의 가슴속에 민족의 긍지를 더욱 뜨겁게 새겨주는 광명성절은 그대로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태양의 나라라는것을 온 세상에 시위하는 일대 사변이였다.

인류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위인의 탄생일을 태양에 비

겨 칭송한 례는 없었다.

더우기 온 나라 인민들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절절한 마음에 의하여 제정공포되여 전국가적, 전세계적범위에서 성대히 경축하며 위인의 력사가 세기와 세기를 넘어 영원히 이어지도록 한 례는 일찌기 알지 못한다.

이러한 중대조치는 오직 수령에 대한 지극한 경모심을 간직한 참다운 령도자에 의해서만 취해질수 있고 수령영생을 확고한 신념과 고결한 도덕의리로 여기는 주체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숭고한 화폭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광명성절을 최상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이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광명성절경축행사는 그대로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그이의 혁명력사가 이 땅에 변함없이 흐르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행사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보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한결같이 기원하고 태양의 력사를 길이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위인상이 비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떨던 피눈물의 그 언덕에서부터 벌써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70돐을 가장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할데 대한

구상을 하시였다.

그러시고 새해에 들어와 여러 차례나 광명성절경축행사준비정형을 일일이 료해하시고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광명성절경축행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대정치축전으로 성대히 진행되게 되였다.

광명성절을 맞으며 만수대창작사에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기마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함에 관한 공동결정공표와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례식 엄숙히 거행,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발표,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존함을 모신 공화국의 최고훈장과 최고상의 제정,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을 모신 기념주화 발행, 위대한 장군님 탄생 7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광명성절경축 각 도, 시, 군, 련합기업소 보고대회 및 보고회 진행, 전국주체사상토론회 진행, 제16차 **김정일**화축전과 광명성절경축 대공연을 비롯한 예술공연, 전람회, 전시회 진행, 백두산밀영 결의대회, 청년전위들의 맹세대회를 비롯한 여러가지 다채로운 모임 진행…

참으로 그 하나하나의 행사들은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불

같이 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더해주고 그이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과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성대하고 숭엄하게 진행되였다.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펼쳐진 광명성절경축행사들을 목격하면서 세계는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그이의 뜻과 위업은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고 일치하게 평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인민들이 받아안은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이 모셔진 초상휘장에도 인민들이 늘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산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든든히 그리고 끝까지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제16차 **김정일**화축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처음으로 열린 태양의 꽃축전으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열기가 뜨겁게 분출되는 속에 진행되였다.

이해의 날씨는 수십년만에 들이닥친 강추위로 하여 다른 겨울들보다 추웠다.

이러한 강추위속에서 꽃을 재배한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인민들은 물론 외국의 벗들까지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재배를 과학적으로 하여 태양의 꽃을 더 훌륭하게 키워냈다.

하기에 **김정일**화를 육종해낸 육종가는 축전위원회앞으로 보내온 전문에서 자기가 수십년동안 육종재배하고있는 **김정일**화를 보다 더 화려하고 크게 재배하여 온 축전장을 뒤덮게 한것만 보아도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조선인민과 인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탄복해마지 않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시기의 전례를 깨뜨리고 관록있는 여러 예술단체들이 협동하여 대공연을 진행하도록 하시고 공연종목과 공연내용, 공연행사의 규모와 형식, 날자와 장소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관심해주시였다.

수천명이 출연하는 대공연을 통하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찬가를 부르며 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광명성절을 세계적범위에서 성대히 경축하도록 하는 사업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세계적판도에서 가장 뜻깊게, 가장 성대하게 경축하기 위한 준비사업은 이미전부터 진행해오고있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이 다가오면 여러 나라와 지

역, 단체들에서 경축준비위원회들을 결성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추진하는것이 수십년동안 하나의 관례로 되여왔다.

공화국에서 광명성절이 제정되였다는 소식에 접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면서 종전관례보다 날자를 훨씬 앞당겨 경축준비위원회들을 조직하고 자기 활동을 개시하였다.

전세계적인 관심과 준비속에 광명성절을 계기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의 흠모심과 경모의 마음, 그이에 대한 추억과 장군님의 혁명생애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경축집회, 기념모임,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영화감상회, 토론회, 강연회, 독보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례년에 없이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경축하여 미국의 뉴욕에서는 광명성절경축 《2월의 봄 음악회》가 진행되였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세계 각국에서 국가수반들과 당수들, 정계, 사회계의 저명한 인사들도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매혹과 진정을 남김없이 토로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와 인사들속에서 장군님께 명예칭호와 명예시민칭호, 진귀한 선물들을 보내여왔다.

세계적으로 위인칭송의 보도열풍도 일어났다.

로씨야의 소리방송, 미국의 AP통신, UPI통신, CNN방송, 《뉴욕 타임스》,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일

본의 교도통신 등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론들이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소식들을 신속히 보도하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50여개 나라에서 근 200건에 달하는 위대성기사들이 출판물들에 게재되였다.

남조선언론들도 《력대 최고수준의 행사였다.》, 《경축분위기가 매우 강하였고 열기가 뜨거웠다.》, 《전례없이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전례없는 규모에서 성대하게 진행된 경축행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태양의 영생은 오직 절세의 위인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수령님과 장군님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영생하실것이다.

4.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 ························ 118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해나가자 ·················· 129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 정히 새기시고 ········· 138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

무릇 수령의 영생은 수령의 사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수령의 위대성은 곧 사상의 위대성이다. 수령이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게 되는것은 수령이 창시한 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과 운명적으로 결합되여있기때문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집대성한 사상을 창시하여 인민대중에게 안겨주며 인민대중은 수령으로부터 위대한 사상을 받아안고 그것을 운명개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아 실천해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수령과 인민을 운명적으로 결합시키고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만드는 근본요인은 수령의 사상이라고 할수 있다.

력사는 수령의 사상을 변함없이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줄기찬 투쟁속에서만 수령이 영생하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수령님의 존함, 태양의 존함과 결부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은 출발점과 기초도 하나이고 체계와 구성도 일치한 하나의 사상으로 생각하여왔다.

그래서 이미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하나로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러왔다.

하지만 한없이 겸허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정일**주의는 아무리 파고들어야 **김일성**주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김일성**주의를 자신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는것을 극력 만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이 태양의 존함과 함께 현시대의 위력한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주체101(2012)년 4월 6일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담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

나게 완성해나가자》를 발표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두분의 태양의 존함을 함께 모신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과 혁명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나가야 합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고전적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두분의 태양의 존함과 결부시키는것을 제일중대사로 여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였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존함을 모신 혁명사상으로 받아안은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자랑찬 승리로 아로새기려는 자기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정치적사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식화하신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

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완성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다.

그이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면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은 인민대중제일주의이라고 밝혀주시였다.

바로 여기에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혁명적성격과 내용을 가장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담보하는 근본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밝히신 그이의 사상리론적 예지와 불멸의 위인상이 있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진 현시대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여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모든 원리와 내용이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할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여있다.

때문에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일수 있는 정당하고 보편적이며 생활력있는 시대사상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현실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되였으며 온 사회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인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대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인민》이라는 숭고한 이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시대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면서 그 구성체계와 내용들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인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의 진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칙적로정,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과정에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뿐 아니라 령도방법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그리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는 완성된 사상이라는것이 보다 뚜렷해졌을뿐 아니라 오늘은 물론 먼 앞날까지도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할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라는것이 다시금 증명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

있으며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앞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현시대의 완성된 사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공산당기관지가 자기의 글에서 《자주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공인되고있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혁명사상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된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으로 된다.》고 한것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하신데 이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이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빛나게 구현해오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적

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경제와 인민생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의연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줄기차게 투쟁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업을 변함없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을 틀어쥐고 끝까지 계승완성하시려는 절세위인의 드팀없는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에 담겨져있는 본질적내용들을 심오히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한다는것은 결국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우고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

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해나간다는것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실현에서 나서는 전략적목표와 과업,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모든 부문에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투쟁과업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것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인민의 나라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

하시고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적대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사회주의위업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춘 국가건설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단계이며 그것은 사회주의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실현해나가는 투쟁속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정치군사적력량과 경제기술적, 문화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휘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총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인민정권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창조적활동을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집단주의위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주의건

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다.

3대혁명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와 통일단결이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경제, 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목표들이 달성되게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면 3대혁명로선과 함께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자강력제일주의의 기반은 자기 나라 혁명은 자체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며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우리 인민을 불가능을 모르는 정신력의 최강자로 키우고 우리 조국을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

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 나라가 통일되고 강대해지며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밀고나가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우리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업적이야말로 수령의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령도자가 이룩할수 있는 최상최대의 사상리론적공적으로 된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해나가자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에는 애국에 관한 각양각색의 주의주장들이 기록되여있다. 만사람을 경탄시키는 애국적인 장거들도 수없이 전해지고있다.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나라마다, 민족마다 자기식으로 주장하는 애국의 사상은 얼마든지 찾아볼수 있다.

그러나 수령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애국주의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뛰여난 사상리론적예지를 지니신 절세위인을 모시고있는 우리 조국에서는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애국주의가 탄생하여 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오는 기적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애국사상을 **김정일**애국주의로 명명하시고 그를 사상정신적원동력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전체 인민의 열렬한 애국심을 총폭발시켜나가는 거창한 위업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될수록 인민들의 애국주의, 애국심은

더욱더 높아져야 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그 어느때보다도 뜨겁고 열렬한 애국심, 애국주의를 요구한다.

돌이켜보면 강국의 리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애국투쟁의 앞장에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 탁월한 수령들이 언제나 서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우리 인민의 애국심을 굳게 믿고 무장대오를 조직하여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조국해방의 애국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해방직후에는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는 력사적인 개선연설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열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공화국앞에 준엄한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던 그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친필서한으로 애국의 불길을 지펴올려 엄혹한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시였던 애국리념을 불씨로 애국주의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절세위인의 이렇듯 숭고한 의지에 떠받들려 **김정일**애국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어도 탄생하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3월초 이 나라의 평범한 산길을 따라 야전차들이 달리고있었다.

종비나무와 목련과 같이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실은 자동차를 이끌고 달리는 야전차안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타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차창밖으로 고난의 나날에 입은 상처를 말없이 보여주는 산야를 내다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아직은 그 누구도 그이의 심중에 무엇이 고패치고있는지, 나라의 중대사를 돌보셔야 할 그이께서 어찌하여 나무모들을 싣고 이 길에 오르시였는지 알지 못하고있었다.

인민군대의 어느 한 부대에 이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은 해방직후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여 조국의 륭성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력사의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식수절을 기념하여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나무심을 장소를 더듬어 찾으시던 그이께서는 나무심을 구뎅이를 미리 파놓은것을 보시고 이런것은 형식주의라고 하시며 나무심기를 할 때에는 누구나 자기 손으로 구뎅이를 파고 심어야 식수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의 정화이라는데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간직하고계신 숭고한 애국리념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장속에 고동치는 애국의 세계를 되새겨보았다.

한평생을 통털어 애국이라고 말할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앞길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애국사상과 정신을 유산으로 남긴 위인, 이 세상 그 어느 애국자들도 견줄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같으신 절세의 애국자는 있어본적이 없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높은 뜻을 이어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언제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성스러운 애국실천으로 빛나게 구현해오신 숭고한 애국주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자!

여기에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애국애족의 마음을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지가 력력히 어리

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 기회에 한평생 열과 정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2012년 4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지난 3월 식수절에 즈음하여 인민군부대에 가서 나무를 심으면서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에 구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이 사업이 잘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고 지금 일군들이 식수절에 나무를 심는것을 보면 자기들이 구뎅이를 파고 심는것이 아니라 행사식으로 남들이 이미 파놓은 구뎅이에 심고있는데 그렇게 하는것은 형식주의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 어느날에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애국주의를 론할 때 애국주의일반을 론할것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김정일**애국주의를 론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때뿐이 아니였다.

그해 7월 어느날에도 수도의 시민들과 청년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하여 그들이 장군님의 숭고한 애족애민의 사상을 깊이 새기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은 한생을 바쳐 조국의 풀 한포기, 조약돌 하나까지도 자신의 심장과 열로 뜨겁게 달구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수도의 시민들과 청년들을 **김정일**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불보다 뜨거운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몸바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시는것은 그것을 한갖 구호로 웨치거나 기발처럼 들고나가라는것이 아니라 일군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런 숭고한 의도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들이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26일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라는 력사적인 담화를 발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담화에서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는데 대하여서와 일군들이 아직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깊이있게 리해하지 못하고있을뿐 아니라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해나가지 못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

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였고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 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군 하시였다. …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장정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애국주의는 그 본질적내용으로 보나 커다란 생활력으로 보나 오직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이라고, 그렇기때문에 자신께서는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애국주의일반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지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소

중히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가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있으며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 숭고한 후대관으로 일관되여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고나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워야 하며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

참으로 이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대한 빛나는 총화이다. 장군님의 념원대로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의 최고정화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도록 이끄신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비행사들과 나무를 심으시면서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의 정화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가슴속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진수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시였다.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시여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애국주의를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구현해나가고있다고 하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키는 나날에 이들이 발휘한 정신을 애국의 정신으로 높이 내세워주시였다.

그리고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최첨단을 돌파하고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해나가는 참된 길이 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확고한 방도가 있다는것을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시면서도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조국땅의 나무 한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꾸는데 자기의 땀과 지성

을 바치는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나무 한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꾸는 과정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길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오늘도 이 나라의 인민들은 가사보다 국사를 앞에 놓고 국가가 겪는 곤난을 열가지든 백가지든 함께 걸머지며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이 나라를 굳건히 받드는 고마운 애국자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라고 하신 절세위인의 하늘같은 믿음을 가슴속에 정히 새겨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념원인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길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 정히 새기시고

예로부터 백성은 나라의 근본, 정치의 근본이라고 일러왔다.

동방과 서방을 막론하고 정치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인민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며 인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온것도 바로 그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력사에 존재한 사상가, 정치가들치고 진정으로 인민에 대한 옳바른 견해를 밝히고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위인은 없었다.

인민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와 립장을 밝히시고 인민중시

의 참다운 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믿음속에 탁월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로 칭송받으신분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에서 근본바탕을 이루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으로 밝혀주시여 어버이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의 생명력이 변함없이 과시되게 하신다.

이민위천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에 관통되여있는 좌우명이였으며 절대불변의 신조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좌우명속에 있는 인민은 그 어떤 영웅호걸이나 특수한 몇몇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였다.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바로 수령님들께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존재, 하늘로 내세우신 인민이였다.

예로부터 하늘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숭상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고대인들에게서 하늘은 광활한 우주공간에서 일어나는 천지조화를 주관하는 절대적인 존재로 신성시되였다. 이러한 하늘

숭상의식은 후세에 와서 초자연적존재들을 만들어 《신》으로 내세우는 종교적관념으로 구현되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 《하느님》이라는 말은 사람들속에서 세상만물을 창조하고 총괄하는 절대적지배자, 조물주, 전지전능한 존재로 간주되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지만물의 절대적인 지배자, 전지전능한 존재의 지위에 바로 평범한 인민을 올려세우시였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천도교의 박인진도정은 위대한 수령님께 이런 물음을 드린적이 있었다.

《우리가 <한울님>을 숭상하듯이 장군도 숭상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시였다.

…물론 나에게도 신처럼 숭상하는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이다. 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겨왔고 인민을 하느님처럼 섬겨오고있다. 나의 하느님은 다름아닌 인민이다. 세상에 인민대중처럼 전지전능하고 위력한 힘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이민위천》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있다. …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 수령님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 바치시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고 한다고,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라는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정녕 인민은 곧 하늘이라는 이 부름속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있고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한생이 집약되여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며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중시의 절대적인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계승해나가신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둔 분망한 나날속에서도 일군들에게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리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 어머니가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이라고 하여 버리지 않고 더 걱정하고 마음을 쓰듯이 당조직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당의 품에 안아주고 장군님과 정으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느 한 대회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여기에는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숭고한 귀감으로 하여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명확히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존재와 발전에서 언제나 생명으로 간직해야 할 인민철학으로 그 지위를 새롭게 밝혀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신 이민위천의 사상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지혜로운 존재로 보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철리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드시여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나가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내가 이미 말하였지만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전진시켜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이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정립하여주시면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근본핵으로 규정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관, 인민철학에서 기본을 이룬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고귀한 귀감이다.

한평생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생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다고,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풍족하며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겠는가 하는 생각뿐이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시종일관 내세워오시였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과 국가를 창건하시면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것을 당과 국가건설의 총적목표로 규정해주시였다. 그리고 당과 국가가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언제

나 인민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당과 국가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것을 최고원칙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우리 조국에서는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가장 정의로운것으로 최우선시되고있다. 정치와 경제, 군사가 오직 인민을 위한것으로 되고 문화와 도덕도 인민적인것이 장려되고있으며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최고정화를 이룬다고 밝혀주시였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당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투쟁하고있다.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리를 최우선, 절대시하고 사회의 모든 재부를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리고있으며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게 하고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그것을 관철해나가고있다.

조선로동당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성스러운 력사를 수놓아갈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간직하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져 오늘 당활동의 철칙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에서 우리 일군들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에 가득 채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우리 당과 함께 끝끝이 이어갈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당세포에서는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지니셨던 숭고한 인민관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인민을 자기 부모처자

처럼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에서 최대의 금물은 세도와 관료주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정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이 가장 경계하여야 할 위험한 독소로 보시고 그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관하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당을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당이 아니라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기회에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사회주의화원에 돋아난 독초, 《주적》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시며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강조해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0(2011)년 12월말 지금 일군들이 세도를 쓰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티를 내면서 군중과 어울리지 않는것이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으실 의지를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는 단순히 일군들의 성격상문제나 사업작풍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상의 문제이라고, 적들이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허물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오늘 세도군, 관료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단호히 쳐야 할 주되는 투쟁대상이라고, 당중앙위원회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화원에 돋아난 독초와 같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벌초만 할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버리기로 단단히 결심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서도 우리 당에 있어서 현시기 가장 경계하고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삼아야 할 과녁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면서 그 사소한 요소와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정히 새겨안으시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이 온 사회에 차넘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5.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내이며

대를 이어 전해갈 재보로 ························ 150

헌신의 그 자욱 이어가시며 ························ 166

귀중한 씨앗들 만복의 열매로 ·················· 177

대를 이어 전해갈 재보로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이 대를 이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고귀한 밑천으로, 재보로 간주될 때 많은 세월이 흘러도 만대에 빛을 뿌리게 된다.

력사는 수령이 이룩한 업적을 옹호고수하지 못할 때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좌왕우왕하게 되며 피로써 쟁취한 전취물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것은 령도자에게 지워진 가장 숭고한 력사적임무이며 수령의 후계자의 위인상은 수령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조국과 인민의 귀중한 유산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고귀한 재보로 길이 빛내여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서 전체 인민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언제나 백두산을 심장에 안고 살도록 하는데 특별

히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다.

이 땅의 천만산악을 품에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백두산!

우리 민족은 일찌기 여기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인류력사의 가장 이른시기에 국가문명시대에 들어섰다.

하기에 백두산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사의 발상지, 조종의 산, 민족의 성산으로 불리워왔다.

세기를 두고 겨레의 마음속에 신령의 산으로 새겨져온 백두산은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의 천고밀림과 줄기줄기마다에 피어린 자욱을 새기시며 조국해방의 새 아침을 불러오시고 이곳의 추녀낮은 귀틀집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일봉의 우뢰소리 드높이 천하를 떨치시던 그때로부터 혁명의 성산으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였다.

백두대지는 민족의 운명이 도탄에 빠져있던 때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인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창조한 유서깊은 혁명전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한 항일대전의 나날 백두밀림에서 창조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건히 계승하고 구현해오신 백두의 혁명정신은 우리 인민의 가장 값높은 재부이며 영원

한 조선의 정신이다.

인민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백두산을 심장속에 안고 살아야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심장속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진수를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몸소 여러 차례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백두의 혁명전구를 찾으시였다.

령도자가 찍어가는 발자취, 이는 그자체가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숭고한 본보기이다. 거기에는 나라와 인민의 부강발전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 절절한 호소가 어려있다.

주체103(2014)년 10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백두산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에 새기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나가도록 하실 웅지를 안으시고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사가 깃들어있고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인 백두산은 그이께 있어서 그리움의 상징, 신념과 의지를 굳혀주는 마음의 고향이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조선의 혁명가라면 누구나 백두산을 알아야 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자면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장에 간직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새겨안고 20여년전에 처음으로 백두산에 올라가보았다. 내가 오늘 또다시 백두산에 오른것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인 백두의 혁명정신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더 깊이 체득하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이 차넘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

계속하여 백두산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 백절불굴의 정신과 기상, 숭고한 풍모를 체현하고있는 력사의 증견자이라고 하신데 이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의 본질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군인들과 인민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교양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가 매우 중요하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을 잘 조직진행하면 군인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투쟁업적, 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불바다를 헤쳐온 항일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바로 알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수 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을 조직하도록 하시고 답사행군의 앞장에 일군들부터 내세워주시였다.

일군들이 백두의 칼바람을 실감하면서 몸과 마음을 백두의 청신한 공기로 깨끗이 씻어내야 그들이 백두의 혁명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폐부로 새기고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더 빨리, 꽉 차넘치게 할수 있다는 의도에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해주시고 그들이 행군을 성과적으로 마치였을 때에는 직접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고무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강행군도 하고 야외에서 숙식도 하면서 백두산의 눈보라맛을 보았을것이라고, 그 과정에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기 위해 풍찬로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았을뿐 아니라 우리 혁명의 시원, 우리 혁명의 전통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더 잘 알게 되였을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하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 지휘성원들의 뒤를 이어 전국의 당, 근로단체 일군들을 비롯한 수많은 일군들이 백두산전구들을 답사행군하였으며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살며 일해나가려는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살아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의 진가를 정확히 알고 길이 빛내여나갈수 있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 새해에 즈음하여 하신 신년사에서도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제시해주시였다.

이어 그해 4월중순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성원들과 함께 백두산정에 또다시 오르시여 그들모두가 백두의 혁명정신을 안고 살며 투쟁하도록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이날 바람이 초당 25㎧로 강하게 불어치는 백두산정에 거연히 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산칼바람을 한몸에 맞으시며 멀리 동쪽하늘가를 바라보시였다.

아침 7시 40분경, 흰 안개를 허리에 두른 백두령봉과 기암절벽들에 감색, 붉은색으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노을이 피여오르고 삽시에 그 색갈이 점점 짙어지는 속에서 진한 불덩어리가 솟구치며 백두산해돋이가 시작되였다.

해돋이를 맞이한 백두산은 세찬 눈보라, 돌풍을 일으키며

천지조화를 일으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맛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을 알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고, 백두산으로 오르는 길은 그 어떤 핵무기의 위력에도 비할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량식을 안겨주는 길,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내여가는 길, 영광넘친 조선혁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길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절세위인의 믿음속에 백두산정에서 한생토록 가슴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할 정신적재부를 받아안은 전투비행사들은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켜가는 길에서 항일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갈 맹세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에도 여러 차례 백두산에 오르시여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도록 하시였다.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이 온 세계를 진감하고있던 2017년 12월에 이어 2019년 10월 혁명의 걸음걸음이 총화되고 새로운 웅략들이 결심되는 조선혁명의 책원지, 조국의 무진

장한 힘의 근원지인 백두산에 새로운 백두산룡마신화를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해말 또다시 백두산에로의 준마행군을 단행하시였다.

몸소 무릎치는 생눈길을 헤치시며 백두의 혁명전구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보존관리사업과 답사실태를 료해하시고 혁명전통교양의 력사적중요성과 그를 더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전체 인민을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혁명의 전략적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하겠다고 하시고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하나하나의 사적건물과 사적물들은 물론 백두대지의 나무 한그루, 풀한포기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념원이 푸르싱싱 살아있고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피흘려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의 넋이 생생히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고 우리 혁명의 승리의 력사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 하는것을 알려면 누구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에 와보아야 한다. …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에 앞장설

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견실하고 유능한 정치활동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려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에 솔선 참가하여 《백두산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여러날에 걸쳐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며 혁명전통교양을 보다 강도높이 공세적으로 벌리는데서 나서는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신데 이어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나운 북방겨울의 추위를 물리고 따뜻한 봄기운을 내뿜는듯한 백두산을 굽어보시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억척의 의지를 더욱 굳히시였다.

오늘도 절세위인께서 찍어가신 자욱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에로의 답사행군길에 오르고있다.

강추위와 맵짠 눈보라가 앞을 막아서는 그 길을 걸으며 인민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준비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력력히 어려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을 대를 이어 전해갈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더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수령이

이룩한 령도업적이 길이 빛나도록 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가 곧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나아갈 진로가 있습니다.》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 혁명사적교양실을 비롯한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길이 전하는 뜻깊은 장소이며 대를 이어 길이 전해갈 민족의 귀중한 재보들이다.

이곳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되여 있고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승리의 력사, 승리의 전통이 아로새겨져있으며 그 누구도 만들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고귀한 재부가 있다.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잘 꾸리는것은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사업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인민들에게 그것을 더욱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수령님들의 뜻과 위업을 대를 이어 변함없이 계승해나가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서 이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수령님들의 혁명력사가 이 땅에 변함없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수령영생문제와 직결되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부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와 삼지연지구를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2년 3월을 비롯하여 여러 기회에 만경대혁명사적지를 잘 꾸려야 한다고, 만경대는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태양의 성지, 혁명의 성지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우리는 만경대를 태양의 성지로 더 잘 꾸려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대대손손 전해가며 이 땅우에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여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2013년 11월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나 삼지연지구를 찾으시여 이곳을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답게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보다 훌륭히 꾸리며 수령님들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이 나날 그이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는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되여야 한다고, 우리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들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추운 겨울에도 오시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찾아오시여 삼지연지구를 훌륭히 꾸리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삼지연시는 혁명전통교양거점으로, 산간도시의 표준으로 그 면모가 일신될수 있었다.

삼지연지구만이 아니다.

마두산혁명전적지와 창골혁명사적지, 유평혁명사적지와 조국해방전쟁사적지, 평천혁명사적지 등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마다에 끊임없이 새기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업적을 보여주는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은 대를 이어가며 전해갈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보다 훌륭히 꾸려질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들을 대를 이어 전해갈 재보로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그 학술배렬과 사적물들의 보존원칙, 사적해설의 방향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철저히 수령님들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시며 바치신 로고는 끝이 없다.

사적물 하나하나, 전시할 사적물들의 세부까지 관심하시며 기울이신 그이의 심혈과 로고는 조선혁명박물관에도 진하

게 어려있다.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신데 맞게 조선혁명박물관을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혁명박물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박물관개건공사를 몸소 발기하시고 형성안과 전시방안들도 여러 차례나 지도해주시였을뿐 아니라 공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그러던 2017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관을 앞둔 조선혁명박물관을 몸소 찾아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주체혁명의 장엄한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개건한것은 중대한 력사적사변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러시고 일찌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박물관창립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에 대하여, 조선혁명박물관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박물관으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기둥이나 같고 혁명의 등대와 같다고,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 우

리 혁명이 걸어온 발전로정이 뚜렷이 안겨오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발전행로도 환히 내다보인다고, 조선혁명박물관은 국보중의 국보이며 그대로 혁명의 교과서이라고, 조선혁명박물관에 보존전시된 혁명사적물들은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야 할 가장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그 얼마나 뜻깊은것인가.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풍부히 할데 대한 문제, 혁명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데 대한 문제, 전국가적으로, 전사회적으로 혁명사적부문을 중시하고 우선시하며 적극 도와줄데 대한 문제 등 혁명사적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환히 밝혀주시였다.

정녕 조선혁명박물관이 새롭게 개건된것은 절세의 위인께서 혁명전통교양을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힘있는 증시였고 대를 이어 전해갈 귀중한 재보를 또 하나 마련하신 특기할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과 로고는 조선혁명박물관에만 깃들어있는것이 아니다.

보통강반에 훌륭히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

이시려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뜻과 그를 위해 바치신 그이의 심혈과 로고를 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전승관으로, 승리의 전통교양의 중심지로 훌륭히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건설의 나날 수십여차에 걸쳐 현지에 나오시여 새로 건설할 기념관의 위치선정으로부터 형성안과 설계, 건설의 단계별목표와 기간, 력량편성과 자재보장, 자료들의 진렬전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중앙홀에 원수복을 입으시고 전승열병식연단에 오르시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립상을 정중히 모실데 대한 문제, 여러 반경화, 사판들을 새로 전시할데 대한 문제, 반경화들을 랍상과 모형들을 잘 배합하여 특색있게 형상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관심하시고 지도해주시며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실로 끝이 없다.

때로는 깊은 밤 현지에 나오시여 이른새벽까지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모습에는 기념관을 수령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가는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보다 훌륭히 꾸리실 일념이 간직되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새롭게 잘 꾸려 전시관이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확고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재보로 빛나도록 하시였다.

절세위인의 이렇듯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길이 전해가는 민족의 재보로, 반세기가 훨씬 넘는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전에 새겨진 전승의 력사를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전당으로, 인민의 가슴속에 백승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갈 의지를 굳게 심어주는 승리의 전통교양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이렇듯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대를 이어 전해갈 민족의 재보로 더 잘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국땅 그 어느곳이나 다 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을 전하는 전당이 되고 교양마당이 되고있다.

헌신의 그 자욱 이어가시며

료원의 불길도 한점의 불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그 본보기가 되고 핵심이 되는 원점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수 있다.

수령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여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수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중시하고 그 단위들이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것이다.

령도업적단위들이 일떠서고 그 단위들의 뒤를 따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해나가는 기풍이 확립될 때 전사회적으로 수령의 업적이 빛나게 되고 수령의 생전의 념원이 현실로 꽃펴나게 된다. 이 과정에 수령의 혁명력사는 영원히 흐르게 되고 수령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중시하시고 그 단위들을 시대의 본보기로 내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하심으로써 수령님들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나라의 방방곡곡을 찾으시며 부강조국의 미래를 담보할수 있는 본보기들을 수많이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현지지도단위들에는 우리 인민이 건설하려는 강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해당 분야의 꿈과 미래가 그대로 비껴있으며 일군들이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일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과 방도들이 집대성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령도업적단위들을 시대의 본보기로 잘 꾸리고 적극 내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걸으시였던 헌신의 그 자욱을 이어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3(2014)년 6월 어느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이 농장을 찾으신데는 깊은 의도가 있으시였다.

이 농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뜻깊은 곳이다.

이 농장을 온실남새농사의 전형단위로 꾸리고 다른 단위에 온실남새재배방법을 배워주도록 하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도 더욱 빛내일수 있었고 온 나라에 온실남새농사의 열풍도 안아올수 있었다. 그리고 현시기 남새온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장려하여 인민들이 한겨울에도 신선한 남새를 늘 먹게 하려는 당의 의도도 관철할수 있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사판을 보시고 이 농장의 남새온실이 요란하다고,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시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시려고 끊임없는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시였다고 하시며 감회깊은 추억을 더듬으시였다.

그이의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이 곳곳마다에 깃들어있는 이 농장을 온 나라의 본보기농장으로 꾸리실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이 농장을 21세기 온실남새생산의 본보기농장, 표본농장으로 잘 꾸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실 구상을 펼쳐주시였다.

그 옛날 장수샘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장천이라 불렀다는 이 고장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그 자욱, 불멸의 업적을 장천의 하늘가에 뚜렷이 새겨주고 농장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웅심깊은 사랑과 은정은 불과 1년이라는 기간에 장천땅의 천지개벽을 안아왔다.

태양열물가열기와 태양빛전지판이 설치된 단층, 소층농촌문화주택들, 온도와 습도, 해비침도와 이산화탄소함유량을 감시하는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가 설치된 남새온실들, 멋쟁이 문화회관과 장천원…

배구장과 수영장, 로라스케트장, 양어장까지 있는 공원을 찾으면 마치 유원지에 들어선듯싶다.

그뿐이 아니다. 도서실, 전자열람실, 기술학습실, 토양분석실, 병해충검정실 등이 잘 꾸려진 농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여러 전문기관들과 련계를 맺고 과학기술자료들을 검색, 열람할수 있으며 필요한 분석을 높은 수준에서 할수 있는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져있다.

아담하고 깨끗한 리인민병원이며 탁아소, 유치원, 학교 등에도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어 농장원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말그대로 모든 면에서 농촌문화혁명의 본보기, 기준으로 전변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농장을 본보기로, 불씨로 하여 온 나라 농촌들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 웅지를 안으시고 2015년 6월 이곳을 찾아주시였다.

이날 장천지구의 희한한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마치 한폭의 그림같다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이 천지개벽되였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우리 농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이 장천땅에 꽃펴났다고 기쁨속에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해 한평생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려보신 농촌의 래일, 수령님의 그 념원을 가슴에 안으시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언덕에서도 위대한 장군님 그려보신 농촌의 모습이 바로 장천땅의 천지개벽과

같은 눈부신 화폭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계시였기에 장천지구의 오늘이 있다고, 이 농장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가 없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전변이 있을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농장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더 많은 남새를 생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천지개벽된 장천땅을 부감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꾸려진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찾아뵈옵고 장천땅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를 보고드리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령도업적단위를 중시하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꽃피우시려는 그이의 구상은 한 단위에서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본보기, 불씨로 하여 농촌문화혁명을 더욱 세

차게 일으키자는것이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농촌들을 문명국의 체모를 갖춘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령도업적단위들을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는 원산구두공장에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7월 이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무릇 말만 외워도 열기가 확확 내뿜는듯한 삼복계절에는 세계 대다수 나라 정치가들과 지도자들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휴양지나 피서지를 찾는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삼복의 폭양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원산구두공장을 찾아주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9년 2월 이곳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돌아보신 로정을 따라 공장을 돌아보시였다.

그리시고는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과업관철정형을 알아보시였다.

아직까지 과업을 관철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료해하신 그이의 안색은 흐려지시였다.

인민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련해주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돌이켜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려 공장에 어려있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업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나직이 말씀

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공장을 령도업적단위답게 잘 꾸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시려는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근로자들의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신발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새로 개건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불과 5개월만에 원산구두공장이 훌륭히 개건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2015년 1월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공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공장과 그 주변이 천지개벽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원산구두공장을 훌륭하게 꾸려놓으니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이런 희한한 공장에 장군님을 모시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뜨겁게 되뇌이시였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들을 원산구두공장처럼 훌륭히 개건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로동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의리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개건한 원산구두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면서 내놓고 자랑할만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이라고, 종업원들이 공장을 로동자들의 궁전이라고 부른다는데 그럴만하다고 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본보기, 표본단위로 꾸려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시기 위해 기울이시는 절세위인의 심혈과 헌신적로고는 끝이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령도업적단위들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앞장에서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지도단위는 그 어느 단위보다 수령님들의 사랑과 믿음을 많이 받은 단위이며 오늘의 혁신은 이 단위들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자기 단위를 번듯하게 꾸려놓았다고 하여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간다고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실지 생산성과, 사업성과로써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참된 길이 있다고 간주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령도업적단위들에서부터 부강조국건

설의 래일을 앞당겨오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눈오고 비오는 날 가림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해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신다.

그이께서 2014년도 다 저물어가던 12월에 진행하신 어느 한 공장에 대한 현지지도는 수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이란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재인식시킨 계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기하시고 품들여 꾸려주신 공장이였지만 이곳 일군들은 소극적인 사업방법에 매달려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하고있었다. 그저 현지지도표식비를 건립해놓고 공장을 조금 꾸려놓은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공장을 찾으시여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표식비를 건립하고 공장을 번듯하게 꾸려놓았다고 하여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간다고 생각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공장이 령도업적단위답게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본보기가 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해주시였다.

겉치레로써가 아니라 실지 사업실적, 생산실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나가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날의 말씀은 온 나라 령도업적

단위들을 분발시킨 또 하나의 발화점으로 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시며 그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자욱우에 태여난 로동자들의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돌이켜보면 이 공장은 해방후부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많이 깃들어있는 공장이다.

2013년 10월 몸소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이 공장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니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옷감문제를 풀기 위하여 한평생 얼마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새겨보게 된다고, 참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공장이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이 집대성되여있는 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는 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장에 깃든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의 생활문제와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당부대로 자신께서 공장합숙을 흠잡을데 없이 건설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까지 해주시였다.

생산의 주인은 로동자들이며 그들의 생활문제를 안착시킬 때 생산에서 더 큰 성과가 이룩되는 법이다. 로동자들이 한

결같이 떨쳐나설 때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고 부강조국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그이께서 늘 강조하시는 문제였다.

때문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몸소 합숙터전도 돌아보시며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토록 깊이 관심하신것이다.

이렇게 되여 공장에서는 로동자합숙건설을 위한 사랑의 건설전투가 벌어지게 되였으며 불과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동자들의 보금자리가 훌륭하게 일떠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4월말 새로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을 새로 건설하여주겠다고 한것은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이 공장 로동계급과 하신 약속이라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정확히 집행되였다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또 하나 관철하였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공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감회깊이 말씀하시면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인민생활문제와 직결되여있는 인민생활향상의 전초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초선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절세위인의 이 말씀에는 공장의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 인민생활향상의 전초선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시대의 선구자가 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성실히 일해나가기를 바라는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중시하시고 시대의 본보기로 꾸려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시는 절세위인의 헌신의 그 자욱이 있어 오늘도 이 땅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력사가 흐르고있다.

귀중한 씨앗들 만복의 열매로

풍성한 열매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것이 아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자래우자면 끊임없이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뿌리와 줄기, 잎이 있고 그보다 앞서 소중한 씨앗이 있어야 한다.

인민이 념원하는 만복이 풍만한 열매로 맺어지자면 그를 위한 귀중한 씨앗이 뿌려져야 한다.

수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면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는 인민의 령도자이다.

결국 수령의 령도업적을 꽃피우는 길에 인민의 만복의 열매가 있고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래일이 담보된다.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민헌신을 《불멸의 헌신》, 《위대한 헌신》이라고 소중히 외우며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는것은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려주신 귀중한 씨앗들을 만복의 열매로 가꾸어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려고 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시기때문이다.

새해 2012년을 하루 앞둔 주체100(2011)년 12월 31일이였다.

피눈물의 바다에서 인민을 태양의 열과 정으로 안아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우리는 돌격나팔을 불면서 새해 진군길에 힘차게 들어서야 한다고, 수령님의 후손들이고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힘과 용기로 바꾸고 일떠서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숭엄한 마음으로 그이를 우러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이제부터 생눈길을 헤쳐나가는 심정으로 일해나가야 한다고, 나도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것처럼 그렇게 일해나가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마음쓰시는 절세위인의 위민헌신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만복의 열매로 꽃피우기 위한 대진군에로 인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대동강이 유유히 감돌아흐르는 강선땅에는 자기의 힘과 기술, 자원이 제일이라는것을 과시하듯 우리의 손으로 창조한 고급건재들로 단장된 대동강타일공장(오늘의 천리마타일공장)이 자리잡고있다.

이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식의 건재기지를 꾸려놓으시려고 몸소 그 건설을 발기하시고 터전까지 잡아주신 공장이였다.

새로 건설된 공장을 찾으시였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시간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며 주체가 철저히 선 청춘공장, 전망성있는 공장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종합적인 건재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헛눈을 팔지 말고 세계를 향하여 질주하도록 고무격려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은정은 애국으로 불타는 열혈심장들에 박동을 더해주는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그 믿음과 은정을 안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상건설장들에 필요되는 타일제품들을 생산보장하는 긴장한 속에서도 2단계 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벌려 여러 생산공정들을 새로 꾸려놓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9월초 이 공장을 찾아주시였다.

공장에 도착하신 그이께서는 구내의 나무 한그루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체취가 풍기고 타일 한장한장에도 그이의 로고가 슴배여있는 공장전경에서 이윽토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설비들의 가동상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능력확장공사를 힘있게 벌리면서 세계적수준의 대형고급건재생산기술을 우리의것으로 만들기 위한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 짧은 기간에 이 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였다.

그리고 풍부한 우리의 원료로 인민들의 미감과 시대적요구에 맞는 새 제품개발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어 다양한 크기와 형태, 색갈, 무늬 그리고 방수와 차열기능 등을 갖춘 고급건재들을 대량생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공장의 제품들이 국제품질인증을 받은 특허품으로 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공장에서는 무연탄가스화를 실현하여 연료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합리적인 소성방법을 받아들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타일공장은 멋쟁이공장, 미남자공장이고 자랑이 많은 공장이라고, 장군님께서 대동강타일공장을 청춘공장, 전망이 있는 공장, 자력갱생의 본보기공장이라고 하시였는데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장군님의 높은 평가의 말씀에 실천으로 보답하였다고, 장군님께서 이처럼 훌륭하게 꾸려진 대동강타일공장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오늘 대동강타일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강국을 얼마든지 건설할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2014년 8월초 또다시 이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높아진 타일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애국의 땀을 바쳐가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공장에 도착하시여 한 일군으로부터 그해의 생산계획을 얼마나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대단하다고, 이 동무들이 한 2년동안 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면서 중요건설장들에 많은 타일들을 보내주었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자신께서는 오늘 여기로 오면서 이 공장의 이름을 천리마의 고향 강선땅에 자리잡고있다는 의미에서 천리마타일공장으로 고쳐부르기로 결심하였다고, 천리마타일공장이라는 이름에는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천리마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기를 바라는 당의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이 공장은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이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명실공히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애국공장이며 볼수록 멋있고 쓸모있는 공장이라고 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주신 귀중한 씨앗의 하나인 자기들의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더욱 높이 울려나감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할 결의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만복의 열매로 가꾸어 인민생활향상과 부강조국건설에서 비약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위민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 5월 어느날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업소가 정말 명당자리에 꾸려졌다고, 여기에서 대대손손 물려갈 조국의 귀중한 재산을 또 하나 보게 된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훌륭히 꾸려진 락산바다련어양어사업소에 장군님을 모시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락산만에 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건설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 인민들에게 련어도 먹일수 있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 일군들은 바다련어양어의 개척자들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고,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하시여 여기에 와보지 못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동행한 일군들의 눈앞에는 몇해전의 일이 떠올랐다.

인민들에게 락을 주시려 강행군의 속도를 높여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동해에서 대서양련어양어가 성공했다는 보고와 함께 락산의 바다에서 보내온 10여kg이나 되는 조선의 첫 련어를 보게 되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줴기밥을 드시면서도 언제면 인민들에게 련어를 맛보게 할수 있겠는가고 물으시면서 온갖 대책을 다 세워주시고 련어양어에 성공하면 자신께서 걸어서라도 락산에 가보겠다고 그렇게도 기다리고 그려보시던 련어였다.

변이 나는 해에는 철갑상어가 바다로 나가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였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이제는 또 대서양련어가 조선의 동해에서 자라게 된 그 경사앞에 얼마나 감격하시였겠는가.

동해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련어를 보고 또 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이 련어를 번쩍 들어올리고 세계여 조선을 보라, 우리 인민들이 이제는 련어를 먹게 되였다고 웨치고싶다고 뜨겁게 외우시였다.

인민들에게 락을 줄수 있는것이라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돌우에 꽃을 피워서라도 다 가져다주시려는 소원이 얼마나 사무치시였으면 이런 눈물겨운 사연을 력사에 남기시였으랴.

그날의 사연을 떠올리는 일군들의 눈굽은 젖어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바다련어양어를 대대적으로 하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련어를 인민들에게 먹이는것은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인 동시에 인민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사업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귀중한 씨앗들을 만복의 열매로 가꾸어가시는 그이의 령도의 자욱은 평양생물기술연구원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돌이켜보면 21세기 첨단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할데 대한 연구종자를 안겨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농산과 축산, 과수, 원예 및 원림사업에 절실히 필요할뿐아니라 인체와 토양, 생태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생물농약은 세계적으로 발전된 몇개 나라들만이 그 생산기술

을 독점하고있는 첨단생물기술제품이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생물농약에 대한 파악이 깊지 못하였고 현실에서는 화학농약에 대한 수요가 높은것으로 하여 관심도 별로 두지 않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적인 생물산업의 발전추세와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생물농약의 개발이 가지는 의의를 환히 꿰뚫어보시고 우리 식으로 연구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과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그 생산기술개발에 달라붙었다.

이들이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완강히 뚫고헤치면서 중간규모에서의 공업화실현에 성공하였을 때였다.

시험적으로 생산한 생물농약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효능이 높고 공해가 없는 우리 식의 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한 과학자들을 축하도 해주시고 그들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애국의 마음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탐구의 길에서 과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에 연구를 완성하지 못한 가슴아픈 죄책감에 모대길 때도 있었고 시련과 난관앞에서 손맥이 풀릴 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시며 나라의 과학발전을 위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이시는 사랑과 믿음, 정에 이끌려 그들은 곧바로 탐구의 길을 이어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생물농약생산의 공업화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장이 일떠서게 되였다.

2015년 6월초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이들의 모범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해야 한다고 그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생물기술연구원의 과학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누가 보건말건 장군님의 유훈관철의 길, 과학탐구의 길을 걷고있는 애국자들을 만나게 되여 정말 기쁘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어려운 난관이 걸음걸음 막아서는 과학연구사업에 한생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기에 웃으며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각오를 안고 첨단수준의 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한 연구원의 과학자들은 애국과학자들이라고, 그들의 애국적량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하시였다.

행복의 절정에서 과학자들은 가슴속에 사무쳐오는 그리움을 담아 심장으로 아뢰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묻어주신 행복의 씨앗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최첨단열매로 무르익고있다고.

온 나라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자욱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만복의 열매로 가꾸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다.

어느 한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힘과 지혜를 합쳐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관심하신 대형복합가공중심반을 제작하고 그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 차례 다녀가신 희천발전소가 완공되였으며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시였던 창전거리와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이 우뚝 솟아오르고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가 넓은 부지에 확장되여 인민생활에 크게 한몫하고있다.

공화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심어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이 빛나는 현실로 변모되고있는것을 목격한 인디아의 한 인사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모든 사업을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뜻대로 해나가고계신다.

김정일령도자의 천재적예지와 걸출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은**각하를 모시여 조선인민의 미래는 창창하다.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업, 업적은 세기를 이어 빛날것이며 진보적인류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인민생활향상과 부강조국건설의 귀중한 씨앗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내 나라, 내 조국땅에서 이렇게 꽃펴나고있다. 그와 더불어 부강조국의 보다 찬란할 미래가 마중오고있다.

6.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모든 사업의 주선 ································ 190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 201

통이 큰 작전 련이어 펼치시여 ·················· 212

모든 사업의 주선

사람은 한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나간다. 그 모든 사업들에서의 성과는 무엇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담보된다.

주선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가는데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주되는 측면을 뜻한다.

어떠한 사업에서나 주선이 있으며 그것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생명선으로 된다.

수령의 사상과 뜻, 수령의 구상과 념원대로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것, 이것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담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령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인 부강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이 땅우에 수령영생의 력사가 변함없이 흐르도록 하신다.

수령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투철한 립장의 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기치로 삼으시는 드

팀없는 신조가 놓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되여나갈것이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있는 확고한 신조이다.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신조로 간주하는분이시기에 그이께서는 대국상의 나날에도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내시며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대한 의지로 위대한 심장을 불태우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비보를 전하는 그 시각 일군들에게 비통함을 금할수 없지만 절대로 맥을 놓고 주저앉아서는 안된다고, 오늘 우리앞에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장군님의 혁명유산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고수하며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고, 이런 때 순간이라도 맥을 놓고 주저앉아있으면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갈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이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혁명의 지휘성원답게 오늘의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버티고 일어나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함으로써 그이께서 바라시던대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피눈물의 그해를 보내는 마지막날에도 일군들에게 장군님께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가 물어도 보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한 정형도 보고드려야 한다고,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도 마련해주시였다고, 중요한것은 그것을 어떻게 관철해나가는가 하는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라는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기어이 이룩하실 절세위인의 신념은 이처럼 투철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수령님들의 력사로 계속 빛내여나가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게 되는 새해에 즈음하여 그이의 숭고한 뜻이 구절구절 맥박치는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가 발표되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절세위인의 원대한 구상과 철의 의지를 똑똑히 새겨안게 되였다.

모든 사업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그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경축 행사장의 높은 연단에서도 메아리쳤고 그이께서 하시는 말씀마다에서, 찾으시는 곳곳마다에서 울려퍼졌다.

그이의 이 신념과 의지, 투철한 자세와 립장은 해가 갈수록 더욱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과 조국해방 70돐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주체104(201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도록 하시고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는 력사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결론에서 그이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충직한 전사, 제자답게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오직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식대로 해나감으로써 이 력사적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선언하시였다.

그리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는것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몸 다 바쳐 결사관철하는것은 장군님의 슬하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난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도덕의리이라고,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은 당이 맡겨준 중요한 직무에서 장군님의 뜻대로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일해왔는가 하는것을 량심적으로 돌이켜보아야 하며 비상한 각오와 열정을 안고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수령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어떻게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두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

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다.

2016년 12월 원산군민발전소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수령의 유훈의 철저한 관철자로서의 그이의 위인적풍모, 수령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인민들과 일군들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높이 내세워주시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를 체험하게 한 계기였다.

원산군민발전소는 몸소 이름도 지어주시며 건설방향과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강원도안의 인민들과 일군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도자체의 힘으로 완공한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발전소를 찾으시여 강원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이 자기들에게 온갖 덕을 안겨주시려고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도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 그처럼 만족해하시며 강원도인민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자력갱생의 기수들로 높이 내세워주

신것은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모진 난관속에서도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 언제를 단순히 언제로만 볼수 없다고, 이 언제는 하늘이 천만번 무너진대도 수령의 사상을 결사옹위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려는 강원도인민들의 드놀지 않는 신념의 장벽이며 불굴의 정신력의 장벽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자신께서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옹위하고 결사관철하는데서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한 강원도인민들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로 원산군민발전소 언제우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는것을 도안의 인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겠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전소를 만족속에 돌아보시고나서 원산군민발전소는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고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기어이 꽃피우려는 강원도인민들의 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일떠섰다고, 원산군민발전소는 강원도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념원이 꽃필 그날을 그리며 어떻게 투쟁하여왔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증견자이며 강원도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충정의 선물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결사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발휘된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정신을 《강원도정신》으로 명명해주시고 온 나라가 따라배워야 할 시대정신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여기에는 강원도인민들처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원산군민발전소에서만 아니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이것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그이께서 늘 강조하시는 문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어느 단위, 그 어느곳을 찾으시여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정형을 먼저 료해하시고 수령님들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을 잘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신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실 때면 그 누구보다 기뻐하신다.

완공된 인민의 유원지와 봉사기지들, 천지개벽, 천도개벽된 공장과 농장, 마을과 초소에 가시여서도, 조국의 방방곡곡에 일떠서는 창조물들을 보시면서도 그 훌륭한 광경들을 위대한 수령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것을 못내 아쉬워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완공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과학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소원을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렇게 훌륭히 꾸려진 과학자살림집지구를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자신께서는 오늘 생전에 수도시민들에게 먹일 기초식품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혈을 바쳐오신 어버이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고 장군님께 공장을 보여드리는 심정으로 이 공장을 돌아보겠다고 하시였다.

로동자들의 희한한 궁전으로 흠잡을데없이 훌륭히 변모된 공장의 여러곳을 만족속에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앞으로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생산의 동음이 끊임없이 계속 울려퍼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하여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 공장의 생산동음을 들으시면서 편히 쉬시도록 하여야 한다시며 일군들의 가슴을 울려주시였다.

끊임없이 이어가신 초강도강행군길에서도 자신의 수첩에 종합대학살림집이라는 글을 써넣으시고 거기에 몇번이나 동그라미를 그어가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

자살림집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념원을 하루빨리 꽃피우시기 위해 종합대학살림집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찌는듯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먼지 날리는 건설현장에까지 나오시여 공사추진정형을 료해하시며 제기일안으로 다그쳐끝내기 위한 대책들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완공을 앞둔 교육자살림집에 또다시 나오시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위치는 장군님께서 몸소 정해주시였다고, 장군님께서는 룡흥네거리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위한 살림집을 지을데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시였다고 하시며 장군님의 은정을 한시도 잊지 말고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수령의 유훈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모든 사업이 철두철미 수령의 유훈관철에로 지향되고 복종되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서 인민들은 수령의 영생을 지켜드리는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영상을 뵈옵고있다.

세상사람들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그이의 투철한 립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들으면서 감탄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로씨야의 한 인사는 《지구상에 선대수령의 유훈관철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있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김정은**각하의 독특한 매력이 여기에 있다. 아마 흐루쑈브나 고르바쵸브가 수정주의길, 개혁, 개방의 길이 아니라 쓰딸린의 위업을 그대로 계승했더라면 천여년의 로씨야력사에 치욕은 남기지 않았을것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세위인상에 대한 세계의 격찬이 있고 주체조선이 승리의 한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힘의 근본원천에 대한 력사의 인식이 있는것이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우리 조국의 모습은 세인의 심장속에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쳐놓으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모습으로,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나는 주체조선의 불멸의 영상으로 력력히 아로새겨지고있다.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굳은 신념과 의지로 난관을 뚫고 원대한 뜻과 결심을 끝까지 실천해나가는데 위인의 진정한 모습이 있고 징표가 있다.

더우기 수령의 유훈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것으로 하여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이것은 령도자에게 지워진 숭고한 력사적사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는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가 되시려는 의지를 굳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체 인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너무도 뜻밖에 서거하신 그날에도 장군님의 고귀한 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이실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시며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서 한치의 양보와 드팀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절절히 말씀하

시였다.

피눈물의 12월을 보내면서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담화는 전체 인민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지침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담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의지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다지신 절세위인의 불변의 신념이였고 온 세계에 선언하신 맹세였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이날 자신께서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맨앞에서 일떠세우겠다고, 자신께서는 래일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장군님께 경의를 표시하고 영원히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를 지니고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며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굳건히 이어나갈 결의를 다지자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새해의 첫아침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찾으시였던 그 걸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아 주시였다.

이것은 모든 사업을 오로지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해나가시려는 자신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다시한번 뚜렷이 표명하신 력사적인 발걸음이였다.

력사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 또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는 수령의 유훈관철에 대한 불타는 의지로 일관되여있으며 인민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떨쳐나서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간직하신분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삶의 목표도, 인생의 포부와 리상도, 보람과 행복도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계승해나가는데 두시고 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헌신하고계신다.

한평생 인민을 찾아 혁명령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심장속에 새기시며 수령의 유훈관철전의 맨 앞장에 서신 그이께 있어서 일요일이나 명절날은 따로 없으시였다.

언제인가도 일군들에게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해나가야 하며 장군님께서 바라시던 일, 장군님께서 못다하신 일들을 기어이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헌신의 새 자욱을 찍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삼라만상도 잠든 깊은 밤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로고를 바쳐가시는 절세위인의 헌신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그이께서는 잠시나마 휴식하실것을 말씀드리는 일군들에게 자신께 있어서 일하는것이 휴식이라고 하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정력적으로 사업하고계신다.

일찍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를 보좌해오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수행하는데 무슨 밤낮이 따로 있고 명절날, 휴식날을 가리겠는가, 자신께서 쉬면 그만큼 장군님께 실리는 사업부담이 커지고 우리 혁명의 전진이 떠진다고 하시며 불철주야로 사업하신 그이이시였다.

언제인가 일군들이 때식도 잊으시고 일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잠시라도 휴식하실것을 간청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그이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의도대로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해 낮에 밤을 이어가며 일하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이제는 밤을 밝혀가며 일하는것이 습성화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혁명가는 육체적힘을 가지고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사상정신적힘을 가지고 일한다고, 육체적힘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정신적힘에는 한계가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런분이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관철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최우선과제는 없다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기적적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터전을 잡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대로, 설계도 시공도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그러시고도 다시금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수첩이나 지어는 땅바닥에 금을 그어가시며 이렇게 하는것이 장군님의 의도였다고 일군들을 일깨워주시면서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자신의 온넋을 다 바쳐 수령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실것을 마음다지신 그이께서는 수령의 유훈관철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에 대한 평양초청도 먼길을 달리시여 직접 하시였고 그들의 체류일정과 음식차림표에 이르기까지 마음쓰시며 손수 작성해주시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 인민들을 새로운 시대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호소문도 몸소 쓰시고 수령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 서시여 인민을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 있어서 분분초초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의 련속이며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모르시는 철저한 유훈관철의 시간이다.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날로 악랄해지는 속에서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려명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연풍과학자휴양소를 비롯한 창조물들을 인민들과 약속한 날자에 어김없이 완공하군 하시였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우주공간으로 기세차게 날아올라 주체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그 힘의 근본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힘의 원동력은 다름아닌 수령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떨칠수 있다는 절세위인의 확고한 의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신념이였다.

주체101(2012)년 12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성발사와 관련한 문건을 보고계시였다.

한장 또 한장, 문건의 매 문구, 매 문장 하나하나를 따져보시듯 보고 또 보시다가 시선을 옮겨 창밖의 멀리를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가에는 절절한 그리움이 어려있었다.

위성발사, 참으로 가슴뜨거운 사연이 여기에 깃들어있었다.

주체조선의 우주정복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시작되였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줄기차게 진행되여왔다.

그 나날 1998년 8월 첫 시험위성 《광명성-1》호의 성공적

인 발사와 2009년 4월 두번째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2》호를 우주공간에 쏴올리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두번째 위성을 쏴올리던 그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면 이미 거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실용위성들을 쏴올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광명성-3》호를 쏴올려 우주정복과 리용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뜻깊은 교시도 주시였다.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리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으로 여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해 참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발사준비를 다그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도 매일과 같이 그 정형을 알아보시였고 위성발사준비에 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후에는 이번 위성발사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돐을 앞두고 진행하기때문에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매우 책임적이고도 중대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며 과학자들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하여주시였다.

11월말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운반로케트의 동체를 쓰다듬으시며 운반로케트를 만져보니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무조건 쏴올려야 하겠다는 신념이 더욱 굳어진다고, 우리의 운반로

케트 《은하-3》은 민족의 넋, 애국의 넋을 안고 기어이 날아오를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이 그이께서 보고계시는 그 문건에, 로케트의 매 부분품마다에 그대로 어리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듯 숭엄한 감정에 잠겨계시던 그이께서는 다시금 집무탁으로 시선을 옮기시였다.

그러시고 펜을 드시고 힘주어 문건우에 써나가시였다.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

2012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발사할것!

김　정　은

2012. 12. 12》

마음속에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들과 함께 계시는 그이께서는 이렇게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날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첫 기관단총의 시험사격을 하신 력사적인 날로 정해주시였다.

발사가 진행되던 날 몸소 위성관제종합지휘소에 나오시여 발사 전 과정을 몸소 지도해주시고 성공의 감격으로 환호를 올리는 위성발사자들을 축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계최강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 장군님의 념원과 존엄높은 공화국의 위상,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우리 인민의 넋을 안고 오늘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로 치달아올랐다. 온 나라에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는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쏴올릴데 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

그로부터 며칠후 위성발사에 공헌한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와 함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번 인공지구위성발사에서의 성과를 두고 못내 기뻐하실 장군님의 모습이 눈앞에 선히 어려온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장군님께서 하라고 하신것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안고 어려운 고비들을 모두 넘어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주체조선의 위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험난한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해 낮과 밤을 이어오신 절세위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장군님에 대한 충정의 마음뿐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일관하게 내밀어 현실에서 그 생활력이 나타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신다.

2015년 10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메기공장을 찾아주시였다.

이 공장으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도시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시려 몸소 발기하시고 품들여 꾸려주신 공장이다. 공장이 완공된 후에는 메기생산량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한해전 이 공장을 찾으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높은 생산실적으로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였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양어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신 그날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으니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시며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는데 대하여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의지를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능력확장된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찾으시여서도 일군들에게 장군님께서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남새를 생산하게 하신것은 연구소가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취해주신 조치인데 장군님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지하초염수로 소금을 생산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현지에까지 몸소 나오시였던 그날에는 머지않아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지하초염수를 가지고 생산한 소금의 덕을 단단히 보게 될것이라고 기뻐하시며 지하초염수로 생산한 소금을 장군님의 은덕이 깃들어있는 소금이라는 의미에서 《은덕소금》으로 부르도록 해주시였다.

수령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있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은 오늘도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통이 큰 작전 련이어 펼치시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목표를 높이 내세우시고 통이 큰 작전으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빛나게 실현해나가고계신다.

무슨 일이나 앞날을 내다보시며 통이 크게 작전하고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는 사업에서는 미흡한 점이 하나도 없어야 하며 그 어느것이나 백점짜리, 만점짜리로 되여야 한다고 늘 강조하신다.

최상의 수준에서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이것이 수령의 유훈관철에서 그이께서 내세우시는 목표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수령의 구상과 념원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믿음으로 이끌어주신다.

어느해 12월말이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하는데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일부 일군들은 지난 시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교시를 관철하였다고 하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관철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있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은 그 진수를 똑똑히 파악하고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관철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에서는 시효가 없다는것,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수령의 유훈을 최상의 높이에서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변의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처럼 아끼고 내세워주시던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어려있는 축산기지들과 양어기지, 수산기지들과 과일생산기지, 버섯생산기지, 식료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 건설장들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높은 목표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어느 한 목장을 찾으시여서는 웃옷이 땀으로 푹 젖어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목장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며 선진기술도 알려주시고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으며 축산에서 세계적기준에 도달할데 대한 목표도 제시해주시였다. 또 언젠가는 몸소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기별도 없이 길 아닌 길을 헤쳐 한 육종장건설장

을 찾아주시여 자랑할만한 육종장으로 보란듯이 일떠서도록 세심한 지도도 주시였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도록 고무해주시고 원대한 구상과 목표도 제시해주시는 절세위인의 위민헌신의 자욱은 축산기지뿐 아니라 양어기지들에도 슴배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새겨져있는 신창양어장을 찾으시였다.

몇해전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양어장에 오셨던 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던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장군님생각이 더 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이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불태운 절세의 애국자는 없다고, 우리는 인민들의 식탁우에 맛좋고 영양가높은 물고기료리를 놓아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하시며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를 양어의 나라로 전변시키려고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그러자면 양어에서도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양어부문의 현대화수준이 높지 못한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당시 일군들은 양어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신창양어장이 기계화, 자동화가 결합된 양어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느라니 장군님 같으신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갈마든다고, 우리 손으로 길러낸 철갑상어들이 나가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라고 하시며 한편의 시를 읊듯이 외우시던 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 떠오른다고 하시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에로 불러일으켜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 바다련어양어사업소를 찾아주시여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키는 길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며 바다련어양어의 전성기를 펼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바다련어양어를 중도반단하지 말고 줄기차게 밀고나가 바다련어양어의 대전성기를 펼쳐야 한다고, 우리 나라는 바다양어를 활성화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련어양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겠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는데서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는 그이이시기에 동무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이악하게 노력하여 이런 훌륭한 전경을 마련하였다고, 얼마나 기쁜지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 락산만에 펼쳐진 이 희한한 현실은 장군님의 유훈과 당의 수산정책을 기어이 관철하려는 이곳 사업소 종업원들의 피타는 탐구와 노력의 결실이라고, 조국의 재부를 하나하나 늘여나가는데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애국의 마음이 이런 자랑스러운 현실을 펼쳐놓을수 있었다고 하시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나가도록 고무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빛내여나가시려는 불같은 의지를 안으시고 황금해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던 그 나날에 바치신 헌신의 로고도 인민을 위한 기쁨으로 달게 여기신 그이이시다.

언제인가 어느 한 수산사업소에서 며칠동안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나 기쁜지 어깨춤이 절로 나왔다고, 정말 너무 기뻐 잠도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신적이 있다.

황금해력사창조의 나날에 펼쳐진 물고기대풍의 희한한 풍경은 수령의 유훈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도록 하신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

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자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현대적인 버섯연구기지를 일떠세워주시고 버섯재배기술에서도 패권을 쥘것을 호소하시던 모습에도, 주체화의 불길을 지펴주시며 현대화의 새로운 높이를 정해주시던 식료공장들과 경공업기지들마다에 어린 발자취에도 수령의 유훈을 어떤 높이에서 어떤 수준으로 실천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심원한 세계가 비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2015년 1월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시였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고에 대하여 감회깊이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 신발공업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체적인 신발공업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공장의 발전전략을 잘 세우고 공장을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들도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신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운동신발분야에서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의 신발들보다 더 좋은 신발을 생산할데 대한 믿음도 안겨주시였다.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념원이였다고, 류원신발공장에서는 질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신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려야 한다고 다시금 당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에는 수령님들의 유훈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해나가시려는 의지가 넘쳐있었다.

새로 개건된 이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시였던 그날에도 공장구내에 모셔진 모자이크벽화와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는것만같다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질좋고 맵시있는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들을 생산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정녕 수령의 뜻을 실천해나가는 길에서 만족을 모르시는 위대한 령도자의 모습이였다.

언제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생전의 뜻을 실천해나가도록 이끄시는 절세위인의 숭고한 풍모는 우리의 《철쭉》상표가 붙은 양말이 다른 나라의 이름난 상표가 붙은 양말보다 더 좋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평양양말공장에도, 우리의 화장품공업을 기어이 세계적수

준으로 올려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평양화장품공장에도, 병원에 직승기착륙장까지 꾸리도록 하신 옥류아동병원에도, 온갖 물놀이유희시설들을 다 갖춘 문수물놀이장에도, 자신은 연구소건설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며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녀성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으로 일떠세워주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에도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높은 목표와 통이 큰 작전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령의 구상과 념원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실 의지로 세월을 주름잡으신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념원하시였고 소원하시던 문제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실현해야 한다. 목표를 높이 세우고 통이 크게 작전하자!

이것이 수령의 생전의 념원을 최상의 수준에서뿐 아니라 세인을 놀래우는 최대의 속도로 관철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뜻이다.

강원땅에 펼쳐졌던 대자연개조의 두 전역도 수령의 구상과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시려는 그이의 담대한 배짱에 의해 세인을 놀래우는 성과들을 낳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로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던 2012년 9월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기 위한 바람을 일으킬데 대하여서와 마식령지구에 스키장을 훌륭히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이미 고산과수농장(당시)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던 강원땅에 한날한시에 대자연개조의 두 전역을 동시에 펼치신것은 참으로 과감한 대작전이였다.

일반적으로 자연개조사업은 많은 로력과 자금이 들고 오랜 시일이 걸리는 방대한 사업이다.

강한 국력과 자금이 없이는 하나의 대상도 수행하기 힘든 일인데 국가적으로 많은 대상공사들이 진행되고있는 상태에서 강원도와 같이 공업적토대가 미약한 지역에서 동시에 두개의 방대한 공사를 벌린다는것은 보통의 상식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계시며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대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만복을 안겨주실 일념으로 온넋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통이 큰 작전에 의하여 세포등판이 전면적으로 개간되는 력사가 시작되였다.

수천만년전에 폭발한 화산에 의하여 용암이 분출하여 흐르면서 넓고 평탄한 덕지대로 형성된 세포등판은 강원도 세포군과 평강군, 이천군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이다.

비록 땅은 넓지만 평균해발고가 높고 눈과 비가 많이 내리

고 바람이 세게 부는 엄혹한 자연기후적조건으로 하여 세포등판은 알곡작물을 심지 못하는 불모의 땅으로 되여왔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조건속에서 잘 자라는것은 집짐승먹이풀들과 뚝감자, 무우, 사탕무우 등이다. 또한 이곳은 년평균강수량도 많고 년평균기온도 적당하며 통풍조건이 좋아 집짐승기르기에는 유리하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을 헤아리시고 세포등판에서 축산을 발전시키도록 하시고 전쟁전에 벌써 세포군에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큰 종합농장을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그후에도 이곳에서 축산을 발전시키도록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수십차례에 걸쳐 세포등판에서 축산을 널리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실현하실 웅지를 지니시고 세포등판건설과 관련하여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시며 공사진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 뜨락또르와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륜전기재들과 련결농기계, 현대적인 설비들과 건설자재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도 다 풀어주시였다.

또한 종합적인 축산기지건설의 발전추세에 대한 안목도 넓혀주시고 세포등판개척자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수령의 유훈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실현해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정력적이고도 현명한 령도가 있어 마침내 2017년 10월 세포지구 축산기지가 준공되게 되였다.

세포등판에서 대자연개조전투가 벌어지고있을 때 마식령에서도 대비약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요일의 휴식도 미루시고 먼지가 앞을 가리우는 건설장의 굽이굽이 험한 령길을 오르시며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지펴주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에 떠받들려 10년이 걸린다던 공사가 최단기간에 끝나는 새로운 건설속도가 창조되였다.

자연과의 엄혹한 투쟁속에 동시에 펼친 두 전역, 이것은 절세위인의 통이 큰 담력과 과감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격전장이였다.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옛 명인이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나날이 천지개벽되는 주체조선의 오늘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자기의 말을 수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념원하신것은 반드시 해야 하며 또 한시바삐 이루어야 한다는것을 자신의 드팀없는

신조로 삼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도 시간을 앞당기고 세월을 주름잡으신다.

승자는 하루가 25시간이고 패자는 하루가 23시간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주름잡으시는 절세위인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는 너무도 숭고하여 그이께서 맞고보내시는 날과 달들을 수자로 세여보고 시간과 세월로 재여볼수 없다.

진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담력과 배짱을 지니고 세계와 시대를 놀래우며 높은 목표, 통이 큰 작전으로 수령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해나가는 천출위인이시다.

천출위인을 모시고있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혁명력사는 세월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며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념원하시던 부강조국의 새 아침은 이 땅우에 반드시 밝아올것이다.

대양의 위업 영원하리

필 자	림이철, 오향숙
장 정	김영일
교 정	조경희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10(2021)년 11월 25일
발 행	주체110(2021)년 11월 29일

ㄱ-1519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39-5

ISBN 978-9946-31-139-5

9 789946 311395